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목차

1	학습안내	1
2	강의	3
3	Lecture	33
4	讲义	71
5	퀴즈	97
6	보고서	101
7	자료	103



## 학습안내

### 01

#### 과목소개

한국은 식민지 지배를 받은 나라가 해방 후 빈곤으로부터 탈출하여 선진국으로 진입한 보기 드문 사례로서 세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도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이 강좌는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모색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개항 이후 조선의 경제가 어떤 상황에 있었고, 식민지 지배를 통해 어떻게 변모되었는지, 해방 후 한국의 고도성장이 어떻게 이루어졌고, 이 과정에서 한국인의 삶이 어떻게 바뀌어 왔는지를 살펴본다. 나아가 한국경제가 현재 직면한 문제를 긴 역사적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 02

#### 학습목표

- (1) 한국의 경제성장 과정을 역사적 사실과 경제학의 논리에 부합하도록 이해한다.
- (2) 각 시대의 제도와 경제시스템이 어떻게 달랐는지를 학습한다.
- (3) 제시된 도표를 작성하는데 이용된 통계 데이터의 특성과 한계가 무엇인지를 학습한다.

### 03

#### 기대효과

이 강좌는 지난 100여 년에 걸친 한국경제의 변모 과정을 가능한 한 그래프를 이용하여 수량적으로 이해하고 외국과도 비교함으로써 수강생들이 한국경제의 역사와 현재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을 키우고자 한다. 한국인의 근현대사에 관한 인식에는 식민지 지배와 분단의 경험으로 인해 민족주의나 이념 대립의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다. 그중에는 사실에 입각해 있지 않거나 경제학의 논리에도 맞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 강좌는 수강생들이 이를 비판적으로 인식하고 한국 근현대사를 균형 잡힌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한다.



04

주차별 구성

1주차	경제성장사를 보는 시각
2주차	거시경제와 성장의 원천
3주차	화폐금융과 재정
4주차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
5주차	생활수준과 불평등
6주차	개항기: 비숍의 기행문을 통한 관찰
7주차	식민지 지배와 제도 변화
8주차	식민지기 경제개발
9주차	해방, 분단, 전쟁과 원조경제
10주차	고도경제성장
11주차	정책전환과 사회개발
12주차	저성장 속의 한국경제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강의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8

주차

## 식민지기 경제개발

8-1

### 일본의 자본수출

수강생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경제성장사> 강좌를 맡은 김낙년입니다. 이번 강좌를 통해 만나게 되어 반갑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덟 번째 강의로 식민지기에 조선이 일본제국의 지역통합 체제에 편입되면서 경제에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 경제의 변화를 가져오는 데 큰 역할을 한 것으로 일본의 자본수출을 들 수 있습니다. 먼저 시기별로 어떤 자금이 어느 규모로 유입 또는 유출되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1920년대에는 산미 증식계획과 관련된 정책 자금이 많이 유입되었고, 쌀의 수출산업화가 촉진되었습니다. 그것이 조선의 농업뿐만 아니라 공업화의 전개에도 큰 영향을 미쳤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1930년대 이후에는 민간자본과 정책자금의 유입이 모두 크게 늘어났고, 그로 인해 공업화가 가속되게 됩니다. 그런데 중일전쟁 이후 특히 1940년대에는 통제가 강화되어 기존의 시장경제가 통제경제 체제로 이행하게 됩니다. 통제경제 체제의 경험은 비록 기간이 짧지만 해방 후 남한과 북한에 큰 영향을 남깁니다. 이번 강의는 이러한 식민지기 경제 변화의 실상과 그 의의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일본은 식민지와 반식민지인 만주를 제외하고 보면 자본의 순 수입국이었습니다. 유일한 예외가 제1차 세계대전에 이루어진 유럽에 대한 자본수출이었습니다. 제1차 대전 중에는 유럽 국가들의 참전으로 세계시장에 공백이 생겼고 일본이 이 기회를 포착하여 무역흑자를 달성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대전 후에는 무역이 다시 적자로 돌아섰고 외화 부족 문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식민지에 대한 자본수출을 가속적으로 확대해 갔습니다. 후발국 일본은 식민지에 대한 자본수출에서 다른 주요 국가에 비해 오히려 적극적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본의 자본수출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어떤 규모로 이루어졌는지 또한 그러한 자본수출의 특징이 시기에 따라 어떻게 변해 왔는지를 밝혀보겠습니다.



표 8-1은 일본 자금이 어떤 경로로 얼마나 유입 또는 유출되었는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기간별로 연평균 값을 보여줍니다. 예컨대 1910년~1920년 11년간의 국고자금이 26백만 엔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에 조선에 유입된 국고자금 flow의 누계 값을 11년으로 나누어 구한 연평균입니다.

기간을 이렇게 설정한 것은 이용된 자료에 제약된 것인데, 대략 1910년대와 1920년대, 그리고 1930년대 이후는 다시 만주사변기 1932년~1937년, 중일전쟁기 1938년~1941년, 태평양전쟁기 1942년~1944년으로 나누었습니다. 만주사변이 1931년, 중일전쟁이 1937년, 태평양전쟁이 1941년에 각각 발발했기 때문에 대략 거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표에 제시된 유출입 자금의 각 항목에 관해서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여기서 국고자금(國庫資金) 중에 행정비란 일본 정부가 조선총독부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보충금을 말합니다. 군사비란 조선에 주둔하는 일본군 경비는 총독부가 부담하지 않고 일본 재정에서 직접 지출되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조선도 군사비의 일부를 부담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뺀 순 유입액을 말합니다. 총독부는 사업공채를 일본에서 발행하였는데, 그 수입금은 대부분 철도 건설과 개량에 사용되었습니다. 표의 국채란 일본에서 발행한 국채 수입에서 원리금 상환을 뺀 순 유입액을 말합니다.

예금부 자금이란 조선에서 우체국에 저금을 하면 그것은 일본 대장성의 예금부의 관할하에 들어가므로 자금이 유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장성이 예금부 자금으로 조선의 지방자치 단체에 융자하거나 채권을 인수하게 되면 그만큼 자금이 조선으로 유입하게 됩니다. 표의 예금부 자금은 유입에서 유출을 뺀 순 유입액을 말합니다. 1920년대에는 유입이 더 많았지만, 후기로 갈수록 마이너스로 바뀌어 유출이 훨씬 더 커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특수 금융기관이란 일본에서 자금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였던 식산은행, 동양척식주식회사, 금융조합을 말하는데, 마찬가지로 순 유입액을 제시하였습니다. 회사자금이란 민간회사를 중심으로 하는 자본금 출자나 차입금 또는 회사채 발행을 통한 자금의 순 유입액을 말합니다. 이에 대해 일본 유가증권 매입이란 조선의 금융기관이 일본이 발행한 국채를 비롯하여 유가증권을 매입한 것을 말하며 그만큼 자금이 유출되었습니다.



표 8-1을 이용하여 일본의 자본수출이 어떤 경로로 이루어졌고 시기별로 어떤 특징을 보였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910년대에는 식민지 지배의 기반을 정비하기 위한 국고자금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돋보였습니다. 회사자금도 조선은행이나 식산은행과 같이 특수 금융기관을 설립하기 위해 출자된 자본금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습니다.

1920년대에는 특수 금융기관을 경유한 자금의 유입이 급증하였습니다. 조선의 산미증식계획을 추진하기 위한 자금은 주로 식산은행과 동양척식주식회사가 공급하였는데, 그들은 이 자금을 일본에서 채권을 발행해서 조달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들 채권의 상당 부분은 전술한 대장성의 예금부가 인수하였습니다. 이것은 식민지 농업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에 일본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였음을 뜻합니다.

이러한 정책자금의 동향에 비하면 이 시기 민간 회사자금의 유입은 상대적으로 정체되어 있었습니다. 만주사변기인 1932년~1937년에는 앞 시기와는 거꾸로 정책자금의 유입이 정체되는 가운데 민간회사의 직접투자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특수 금융기관 경유 자금이 정체한 것은 산미증식계획이 소화공황 때 일본 농민의 반발로 벽에 부딪혔기 때문입니다. 총독부가 발행하는 국채도 신규 발행이 억제된 가운데 원리금 상황이 늘어나 순 유입액은 미미한 수준에 그쳤습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민간자본에 의한 직접투자가 광공업이나 전기업 분야를 중심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1930년대에 전개된 한국의 공업화는 여기에 힘입은 바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일전쟁기인 1938년~1941년에는 각종 경로를 통한 자금 유입이 모두 급증하였습니다. 국고자금에서 철도 건설과 개량을 위한 국채의 발행이 크게 늘어났고, 군사비의 유입도 급증하였습니다. 식산은행을 비롯한 특수 금융기관 경유 자금도 늘어났는데, 그 자금의 성격은 1920년대의 농업자금에서 광공업을 지원하는 자금으로 바뀌었습니다. 민간자본의 직접투자도 급증하였습니다.

태평양전쟁기인 1942년~1944년에는 앞 시기에 이어 국채 발행수입, 군사비, 민간 회사자본을 중심으로 자금의 유입이 더욱 격증하였습니다. 다만 특수 금융기관을 경유하는 자금의 유입은 오히려 축소되었습니다. 이것은 식산은행 등의 채권 발행이 줄어든 때문이 아니라 과거에 일본에서 발행되었던 것이 조선 내 발행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즉 조선 내에 조달 조달이 늘어난 것입니다.





그에 그치지 않고 조선의 금융기관이 일본 유가증권의 매입을 통해 방대한 규모의 자금이 일본으로 유출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자금의 유입과 동시에 유출이 격증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일본의 자본수출 격증이 명목소득을 올려 민간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것을 억제하고자 했던 자금통제의 결과인데, 후술하듯이 자본수출의 의미가 변질되었음을 뜻합니다.



## 8-2

## 농업개발

이하에서는 이와 같은 식민지투자의 전개를 따라가면서 1920년대의 농업개발, 1930년대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 태평양전쟁기에 나타난 자본수출의 변질에 초점을 맞추어 조선경제에 어떠한 변화가 나타났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 조선은 농업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았고, 농업에서 쌀이 지배적인 지위에 있었습니다. 1920년~1934년 산미증식계획은 조선과 일본의 양쪽에서 그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조선총독부는 3.1운동의 대응책으로서 쌀의 증산과 같이 조선 농민들이 그 효과를 실감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일본은 공업화와 도시화가 진전되고 인구도 빠르게 늘어나고 있었기 때문에 쌀의 국내 생산으로는 수요를 충족하지 못해 수입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1918년에 일본에서 쌀값의 폭등으로 일어난 '쌀소동'이라는 소요사태는 당시 내각의 사퇴를 가져올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쌀의 단보(段步)당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였기 때문에 조선에서 쌀의 증산 여력이 크다고 보았습니다. 더구나 조선은 엔 통화권에 있었으므로 수입에 외화를 지불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도 있었습니다.

산미증식계획은 농업생산력을 높이기 위해 비료와 노동력의 투입을 늘리는 농사 개량사업과 수리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조선의 농업은 가뭄과 홍수의 피해가 빈번히 일어났는데 이를 개선하는 수리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큰 자금이 소요되므로 총독부는 식산은행 등을 통해 필요한 자금을 융자해서 수리시설을 건설하고, 그 혜택을 보는 농민들이 수리조합을 결성하여 조합비를 거둬 원리금을 상환하게 하는 정책을 취했습니다. 수리조합에 편입된 농가는 그 혜택을 보지만 조합비를 부담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의 위치에 따라 수해의 정도가 다르고 그에 따라 조합비 부담도 차등해야 하는데, 이를 둘러싸고 농민들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곤 했습니다. 이를 조정하지 못해 조합 자체가 설립에 이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총독부는 수리조합 설립과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자금적 지원뿐만 아니라 제도적인 지원도 하였습니다. 설립된 수리조합 수는 1935년에 190개에 이르는데, 이들을 대상으로 사업이 시행되기 전과 후의 쌀 생산을 비교해 볼 수 있습니다.

『조선토지개량사업요람』에서 1927년~1937년간의 실적을 보면, 사업 시행 전에는 단보당 벼 1석 남짓하던 수확량이 사업 시행 후에는 3석 전후로 크게 늘어납니다. 사업의 성과가 단보당 평균 벼 2석에 가까운 수확량 증가로 나온 것입니다.

당시 경지 소유자가 소작농에게 경지를 빌려주면 수확량의 절반을 소작료로 수취했으므로 늘어난 수확량의 절반을 경지 소유자의 몫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경지 소유자가 조합비를 부담했기 때문에 양자를 비교하면 늘어난 수입 중에서 40%~60%를 조합비로 부담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경지 소유자가 부담하는 비료 대금이나 영농관리비가 추가로 늘어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전체적으로는 수리사업의 경제성이 인정됩니다. 다만 조합에 따라서는 성과에 차이가 커서 쌀의 증수 효과가 예상에 미치지 못해 그 수익으로 조합비를 충당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림 8-1에 의해 식민지기 조선의 쌀의 생산, 무역, 소비 동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쌀 생산량에 관해서는 1936년에 생산량 조사방법이 바뀐 결과 과거의 방식보다 생산량이 26%가 늘어나는 통계상의 단절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가 그 당시부터 문제로 되어왔습니다.

여기서는 토지조사사업이 시행되었던 시기인 1910년~1918년에는 필지별 법정 지가를 산정하기 위해 수확량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실태를 반영하는 것으로 보고, 앞의 오차 26%가 1918년부터 1936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매년 1%씩 오차가 추세적으로 벌어져 왔다는 가정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림 8-1의 생산량\_수정이 그 결과를 보인 것인데, 쌀 생산량이 풍흉에 따른 변동을 수반하면서도 1930년대 말까지 증가하는 추세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단보당 쌀 수확량도 1910년대 전 반의 0.83석에서 같은 1930년대 후반에 1.36석으로 증가하였으므로 산미증식계획의 성과가 어느 정도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1939년에 공전의 대홍작으로 인하여 생산량이 격감하였고 그 후 어느 정도 회복되었다고는 하지만 전시 하에서 쌀 생산은 정체를 면치 못했습니다.

한편 쌀의 수이출량, 당시 일본에 대한 수출과 수입을 이출과 이입이라 구분하였는데 이하에서는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면 구분하지 않기로 하겠습니다. 수이출량을 보면 1930년대 중엽까지 매우 빠른 증가 추세를 지속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식민지 초기에는 생산량 중에서 5%를 수출하던 것이 1930년대 중엽에는 그 절반 정도를 수출하는데 이르게 된 것입니다.

1930년대 말 이후를 제외하면 쌀이 조선에서 가장 중요한 수출 품목이며, 농민들이 수출 동향에 직접 영향을 받게 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는 수출이 대부분 공산품이고 제조업의 기업이 수출을 담당하고 있는 것과 대조적입니다.

쌀 생산량에서 수이출량을 빼고 수이입량을 더하면 조선 내 쌀 소비량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림 8-1에 따르면 쌀 소비량은 중일전쟁까지는 정체하였습니다. 전시에 쌀 생산량과 수출량이 크게 변동하면서 소비량이 많아진 것으로 나왔지만, 여기에는 쌀 재고량의 변동을 감안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사이에 인구가 증가했기 때문에 1인당 쌀 소비량을 구해보면 그래프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1930년대 중엽까지는 감소하는 추세를 보이게 됩니다.

이것은 조선의 농민이 쌀의 소비를 줄여가면서까지 쌀 수출을 늘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쌀의 '기아수출'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한국사 교과서에서는 일본이 쌀을 '수탈'하였기 때문에 조선인의 쌀 소비가 줄었다고 보며, 산미증식계획의 추진으로 조선 농민이 더욱 궁핍해진 증거로 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당시는 시장경제체제이어서 쌀 거래가 당사자의 자유의사에 맡겨져 있었으므로 1인당 쌀 소비의 감소는 경제 논리로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선의 쌀 증산을 웃도는 수출의 증대, 그로 인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가 감소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이 시기는 지주제가 발달해 있어 상당한 규모의 쌀이 소작 미 형태로 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지주는 농민보다 쌀의 상품화율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쌀의 분배 구조가 쌀의 상품화와 일본으로의 수출을 촉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나중에 좀 더 자세히 살펴볼 예정입니다.

또 하나는 조선경제가 쌀이 부족한 일본경제와 통합됨에 따라 조선미의 가격이 일본미에 접근하거나 연동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쌀 가격을 높여 조선의 쌀 소비를 억제하였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소득이 늘어나도 1인당 쌀 소비가 계속 줄어들고 있지만, 당시에는 매끼 쌀밥을 먹는 것이 부의 상징이었습니다.

보통의 농민들은 대부분의 끼니를 조를 비롯한 잡곡으로 때우고 있었습니다. 농민들이 쌀을 생산하고서도 쌀을 제대로 먹기 어려웠던 것은, 쌀을 대량으로 수출하다 보니 귀해져서 가격이 비싸졌기 때문입니다.

그림 6-3에 따르면 조선미 가격이 합병되기 전인 1900년대에는 일본미 가격의 70% 정도였는데, 1920년대에는 90%로 접근하였고, 1930년대 이후는 비슷한 수준에서 등락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조선미가 수출 상품이 되면서 벼의 품종에서나 그 건조 및 가공 과정에서도 상품성을 높여 품질 면에서 일본미에 점차 접근했던 것도 가격 차이를 줄인 요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의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해서 쌀을 수출한 것이 생활 수준의 하락을 가져온 것은 아닙니다. 비유를 하나 들겠습니다. 요즘 송이버섯은 귀하고 하도 비싸서 보통사람들은 좀처럼 먹기 어렵습니다. 그 이유 중의 하나가 일본으로 대량 수출되기 때문입니다. 일본 사람들의 송이버섯 사랑은 유별나서 일본에서도 가격이 매우 높습니다.

한국의 송이버섯 채취 농가가 생산량을 늘렸다고 해도 더 많이 수출하고 나면, 송이버섯의 한국 내 소비가 줄어들겠지요. 그렇다고 해서 한국의 생활 수준이 떨어졌다고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송이버섯을 판 대금으로 다른 소비나 저축이 늘었을 테니까요. 송이버섯이 쌀에 비하면 훨씬 더 귀하고 비싸겠지만, 두 얘기는 논리상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면 쌀을 비롯한 농업의 수출산업화는 조선경제에 어떤 의의가 있었을까요? 표 8-2는 무역 품목별로 조선과 일본의 무역수지를 1918년 이후 5개 연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까만 수치는 무역수지 흑자, 빨간 수치는 적자를 말하는데, 농산물 이출에 의한 공산품 이입이라는 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 있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입된 공산품은 1930년대 전반까지는 방직제품이 가장 많았고 식료품 등을 포함하여 소비재가 중심이었습니다. 그 후 한국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기계기구 및 금속제품 등 생산재의 이입이 크게 늘어났습니다. 또한 농업부문의 대일 무역흑자가 공업부문의 적자를 상당히 상쇄하였고 1935년까지도 그 70%의 수준을 유지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쌀의 무역흑자로 충당하지 못한 부분은 일본에서 유입된 자금으로 메워졌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공산품 이입의 자금원으로서 쌀에 의한 무역흑자가 갖는 의의는 급속히 저하되어 갔습니다. 다만 농산물 무역수지가 1940년에 급감한 것은 그 전 해에 쌀의 대홍작 때문입니다.

요컨대 쌀 소비를 줄여서까지 이루어진 이출 증대는 무역을 통하여 일부 만주로부터 잡곡 등 대체식량 수입을 늘리기도 하였지만, 대부분은 조선 내 공산품의 소비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의 확대가 산미증식계획의 결과인 쌀 이출 증대로 초래되었다는 사실은 특히 주목할만한 점입니다. 그런데 공산품 소비의 확대가 수입을 통해 이루어졌다는 것은 다른 한편 조선 내 공업 생산의 대응이 그만큼 뒤쳐져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림 8-2는 공산품의 주요 업종별로 수이입 무역의존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여기서 수이입 의존도란 수이입액을 그 생산액과 수이입액의 합계로 나누어 구한 것입니다. 그에 따르면, 업종별로 차이가 있었지만, 공업화가 본격화되기 전인 1920년대까지는 쌀에 의한 무역흑자에 기대어 공산품 수이입 의존도는 오히려 높아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 내 형성된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생산이 그 후 급속히 전개되어 수이입 의존도는 1930년대에 저하되어 갔습니다. 즉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의 형성은 일본으로부터 민간자본의 진출을 유인하거나 조선 내 공업생산을 자극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던 것입니다.



이 점을 고려하면 산미증식계획은 쌀에 의한 무역흑자 확대를 통해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을 선행적(先行的)으로 확대하고 시장 면에서 그 후 공업화가 전개되는 기반을 형성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습니다.

한편, 당시 조선은 경지가 지주에게로 집중되어 있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림 8-3에 의해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전체 논에서 소작되는 논 비율인 소작지율을 보면 식민지기 초기에 이미 65%의 높은 수준에 있다가 소화공황기에 약간 상승하는 경향을 보인 후 1930년대 중엽 이후에는 68%의 수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밭의 소작지율은 논보다 낮아 43% 전후에 머물러 있다가 1920년대 후반에 50%로 급상승한 후 그 수준에서 정체하였습니다. 또한 농가호수 중에서 소작농이 차지하는 비율은 1920년대에 40% 전후에서 특히 소화공황기에 급증하여 과반수를 넘겼고 그 후 52%~53%의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것은 순 소작농만의 비율인데 자작 겸 소작농도 상당한 규모에 달해 순수 자작농은 20%에도 못 미치는 상황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농업에서 지주 소작 관계는 식민지기 초에 이미 지배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으며, 미가의 상대가격이 불리하게 바뀐 1920년대 후반에서 소화공황기에 걸쳐 더욱 확대되었지만 1930년대 중엽 이후 그 확대 경향이 멈춘 것으로 보입니다.

소작지율과 생산량 중 소작료로 납부하는 비율인 소작료율을 이용하면 생산된 쌀이 각 계층별로 어떻게 배분되었는가를 개략적으로 추계할 수 있습니다. 예컨대 토지 생산성이 자작지나 소작지에 차이가 없고, 소작료율은 55%라고 가정한 경우에 따르면 1930년대 초에 전체 농가의 3.6%인 지주가 전체 생산량의 37%를 취득한 반면 전체 농가의 53%를 차지하는 소작농의 몫은 20%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옵니다.

더구나 쌀의 자가 소비 분을 제외하여 상품화되는 쌀을 보면 지주로의 집중이 더욱 심해집니다. 지주는 취득한 쌀의 대부분을 상품화할 수 있었지만, 소작농의 취득 분은 전체 인구의 평균소비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상품화된 쌀 중에서 지주에 의한 것이 60%에 달한 것으로 나옵니다. 따라서 일본에 수출된 쌀의 과반수는 지주한테서 나온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선의 쌀 수출에서 곡물상이나 정미업자가 중요한 역할을 하였습니다. 조선에서는 농민 또는 지주가 벼의 상태로 판매하였으므로 미곡상이나 정미업자의 손을 거쳐 현미 또는 백미로 가공한 다음 일본으로 수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조선미 가격이 일본미에 접근했다고 한 것은 조선의 중심시장에서의 미가를 말하며, 개별 농가가 자신의 마당에서 곡물상에게 넘길 때에 받는 가격과 격차가 컸습니다. 농민의 벼 판매가 대량 출하 계절에 집중하였을 뿐만 아니라, 개별 분산적인 농민과 미곡상 사이에는 자금력이나 정보력에 격차가 컸기 때문에 농민이 받는 벼 가격이 부당하게 억눌려졌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1930년 농가경제조사의 사례에 따르면 그 가격 차이가 35%나 되는 것으로 나옵니다. 운송비와 같은 제 비용을 고려하더라도 큰 격차라 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뒤집어 보면 조선에서 곡물상 또는 정미업자들이 쌀의 수출 과정에서 얻는 수익이 컸음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들 지주와 곡물상이 얻은 쌀의 생산과 수출에서 얻은 수익이 큰 규모에 달했을 터인데, 그것이 어디로 갔는지를 구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토지를 집적하는데 사용되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그림 8-3에 따르면 논의 소작지율은 이미 60% 후반에서 미미하게 높아졌을 뿐이므로 논의 구입에 쓰여졌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또 하나는 농외 투자를 늘린 것인데, 이를 직접 보여주는 데이터는 없습니다. 여기서는 김낙년(2003)의 연구에 의거하여 주주 명부와 지주 및 곡물상 명부를 대조하여 성명이 일치하는 자가 소유하는 주식, 즉 그 납입 자본금을 농업 수익으로부터 투자된 것으로 간주하는 방법으로 접근해 보겠습니다.

주주가 번 돈으로 토지를 매입해서 대지주가 된 역의 경우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가능성을 무시해도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주주 명부는『조선은행회사조합요록』에 실린 대주주 성명과 그 소유 주식 수 등을 이용하였고, 규모가 큰 회사의 경우『영업보고서』의 정보를 추가하였습니다. 납입 자본금이 5만 엔 이상인 회사로 한정했습니다.





파악된 주주 수는 적지만 대주주들이기 때문에 투자액 기준으로 보면 주식투자의 실태를 분석하기에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지주나 곡물상 명부는 도별 또는 지역별로 작성된 대지주 명부와 곡물상 명부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들은 자료에 따라 경지 소유 규모가 30정보, 50정보, 100정보 이상인 지주로 한정된 것입니다. 자료가 없어 커버되지 못한 도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 이용된 주주나 지주 및 곡물상은 주식이나 경지의 소유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자들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조선인 회사를 대상으로 그 결과를 요약한 표 8-3에 따르면, 대표가 지주나 곡물상이기도 한 회사의 비율은 녹색 표시로 1925년, 1935년, 1939년에 각각 32%, 33%, 37%로 나와 1/3 정도 차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주식 자본금 중에서 조선인 지주 및 곡물상의 기여도는 분홍색 표시로 1925년에 29%였던 것이 1935년과 1939년에 각각 43%와 47%로 상승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의 자본금 기여도가 1930년대에는 반 가까운 수준에까지 달했으며 더구나 상승 추세를 보였습니다.

업종별로 보면 농업 회사에서 지주 등의 비율이 높게 나오는 것은 당연하며, 금융 상업 회사에서도 대체로 1/3 정도의 대표나 자본금이 지주 또는 곡물상에서 나왔습니다. 전기 광공업 회사의 경우는 하늘색 표시로 지주 곡물상 대표의 비율은 32%~39%로 나왔고, 그들의 자본금 기여도는 27%~47%로 나왔습니다.

표 8-4를 보면 일본인 회사의 경우는 회사 수와 자본금 규모는 조선인 회사보다 훨씬 컸습니다. 대표가 지주 및 곡물상인 비율은 녹색 표시로 조선인보다 다소 낮아 1/4 정도였고, 그들의 자본금 기여도는 분홍색 표시로 23%~24%로 나왔습니다. 다만 이 수치는 회사의 주주 중에서 일본에 거주하는 자들의 지주 또는 곡물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과소 평가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지주 및 곡물상은 회사의 대표나 중역을 겸하는 자의 비율도 높아 그들은 단순히 주주로 머물지 않고 회사의 설립이나 경영에도 직접 참여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용된 자료가 주주든 지주든 상위 그룹에 한정되었으므로 만약 여기에 반영하지 못한 자들을 포함한다면 위의 비율은 상당히 더 높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만 그들의 투자 분야를 보면 농업 내부 또는 쌀 수출과 관련이 깊은 분야에 투자한 것이 많았습니다. 농외투자에서는 1925년에는 금융 상업에 대한 투자가 많았지만, 1930년대 말로 가면 광업, 제조업등으로 투자 분야가 확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은 개인 주주를 대상으로 한 것이었고, 그 외에 법인주주가 있습니다.

당시 공업화는 전기업, 제조업, 광업이 주도하였고 이들 분야의 회사자본금에서는 일본 내 법인에 의한 투자가 많았습니다. 후술하듯이 일본으로부터 들어온 자본과 기술이 공업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였습니다. 다만 일본으로부터의 자본 유입 그 자체가 쌀의 수출로 초래된 공산품 시장의 확대로 인해 유인되었음은 전술한 바와 같습니다.

이상 1920년대 이후 전개된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의 수출산업화는 쌀에 의한 방대한 무역흑자와 농업 수익의 지주로의 집중을 낳았고, 그것이 각각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의 선행적(先行的) 확대와 농업 수익의 농외 투자라는, 즉 시장과 자금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하여 조선 공업화의 내재적 전개를 위한 기반을 형성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 8-3

### 식민지 공업화

여기서는 193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전개되는 식민지 공업화의 정책과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식민지기 조선 공업화에 관한 종래의 통설적인 인식은 일본의 대륙 침략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된 군수공업화 정책의 산물로 보고 있습니다. 1931년 만주사변과 1937년 중일전쟁을 계기로 조선을 대륙의 병참기지로 만들기 위한 군수 중심의 공업화가 추진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업화의 요구나 추진력이 조선의 외부에서 주어진 만큼 공업은 조선 내부와의 유기적 관련이 없이 이중구조를 띠고 있었다는 점이 강조됩니다. 근래에는 이러한 시각의 연구는 많이 줄었지만, 한국사 교과서가 이런 인식에 기초하고 있다는 점에서 통설적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근래 특히 영어권의 문헌에서는 한국경제가 고도성장을 통하여 신흥공업국으로 등장한 점에 주목하고, 그것과 식민지기 공업화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가 많습니다. 특히 박정희 정부 시기에 그 특징이 두드러졌던 국가 주도의 성장유형은 식민지기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고 주장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고도성장기 한국의 개발국가는 식민지기에 그 토양이 만들어졌다는 인식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식민지기 공업화는 총독부에 의한 산업정책의 산물로 묘사됩니다. 이상의 두 시각을 보면 식민지 공업화에 대한 역사적 평가가 얼마나 크게 벌어져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들 모두가 공업화에서 정부의 역할을 중시한다는 점에서는 공통점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에 굳이 이름을 붙인다면 각각 군수공업화론과 개발국가론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국가 주도의 공업화론은 당시의 공업화 정책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습니다. 1920년 이후 조선의 산업정책은 널리 알려진 바와 같이 산미증식계획을 중심으로 하였기 때문에 당연히 공업화를 위한 정책은 소극적이고 보잘것없었습니다.



1929년의 대공황으로 쌀값이 크게 떨어져 일본 농업과의 마찰이 격화되면서 조선의 중농정책은 한계에 부딪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의 공업화 쪽으로 관심을 돌리는 계기가 되었지만, 공업화 정책이 곧바로 구체화된 것은 아닙니다. 총독부가 해방 후에 나타나는 바와 같은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쓸 수가 없었습니다. 조선과 일본의 지역통합 체제를 유지해야 하는 제약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총독부는 공업화를 추진하기 위한 재정적 수단도 갖지 못했습니다. 앞 강의에서 설명한 조선의 통화발행 제도의 제약 때문에 만주사변기에 일본에서 시행된 바와 같이 중앙은행이 인수하는 형태로 국채를 발행하여 재정자금을 조달하는 것이 불가능하였습니다.

또한 공업을 진흥하기 위해서는 자금조달뿐만 아니라 근대적인 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불가결한 요소인데, 이들은 총독부 스스로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에서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이외에 방도가 없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공업화 정책은 우가키(宇垣) 총독 자신이 일본 내 대자본가에게 조선에 투자할 것을 권유하거나 행정조치를 통하여 자본진출에 유리한 환경을 만드는 데 집중되었습니다. 조선의 임금이 저렴하다는 점 이외에도, 예컨대 공장법이나 중요산업통제법과 같이 자본이 회피하고 싶어하는 법령을 가능하면 조선에 적용하지 않음으로써 조선이 '자본의 자유로운 낙토'임을 호소하여 일본 자본의 진출을 유인하려고 하였습니다.

이것을 당시 '우가키 자유주의 정책'이라고 불리던 것인데, 1930년대 전반에 공업화 정책의 특징을 잘 표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공업화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점은 총독부가 1920년대에 수력조사를 통하여 대규모 전원개발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는 점인데, 그 개발은 총독부가 주도한 것은 아니고 일본의 민간자본을 끌어들이는 방식으로 추진되었습니다.

1936년의 조선산업경제조사회에서 '농공병진'이라는 형태로 공업의 진흥이 언급되기 시작하였고, 중일전쟁 이후인 1938년 시국대책조사회에서 공업화의 방향이 더욱 명확하게 설정되었습니다. 거기에서 조선의 공업 특히 군수공업을 비약적으로 진흥시키는 일이 긴급하다고 역설하고, 목표 연도인 1941년까지 확충해야 할 업종과 생산 목표량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서 확충 대상으로 선정된 업종은 엄밀히 말하면 군수공업은 아니고 주로 거기에 투입되는 소재 산업을 말하는데, 당시의 표현에 따르면 '생산력확충계획산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 물자, 자금, 인력을 동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를 통해 이들 자원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분하게 됩니다.

공업화 정책의 실태를 보면 중일전쟁 이전과 이후가 확연히 다르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전시하에서는 생산력확충계획에 따라 특정 업종을 선정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각종 통제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공업화가 추진되었습니다.

즉 시장을 완전히 부정한 것은 아니지만, 중요 물자를 중심으로 하여 계획이 이를 대체하기 시작하였으며 그 경향은 전시말로 갈수록 강해졌습니다. 이에 비하면 중일전쟁 이전에는 군수 공업화라고 할만한 정책은 물론, 국가 주도에 걸맞는 개입주의적인 조치도 거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중일전쟁은 경제운영의 시스템이 크게 전환하는 계기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기존 연구의 인식은 전시 이후 본격화되기 시작하는 군수 공업화나 국가 주도적 요소를 그 이전 시기까지 무리하게 확대 적용하려 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발국가론의 관점은 주로 영어 문헌의 연구에서는 지적 전통의 뿌리가 깊은 것으로 보입니다. 거기에서는 식민지기의 총독부와 박정희 정부를 모두 강한 국가의 유형으로 파악하며, 조선시대 국가와는 단절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좀 더 부연하면 조선 시대 국가는 민주적이지도 않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왕의 전제주의라고도 할 수 없습니다. 양반 세력이 국왕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견제와 균형이 조선왕조가 오랫동안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을 설명하는 요인이기도 하지만, 개항 전후 급변하는 정세에 대처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인 체제였다고 인식되고 있습니다.

일제의 식민지 지배는 이러한 전통적인 정부를 중앙집권적인 권위주의 정부로 대체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박정희 시대의 권위주의 정부도 조선 사회 전통에서 온 것이라기보다는 식민지 정부에 기원을 두고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국가는 한편에서는 매우 억압적이지만, 다른 한편 개발 지향성을 가지고 있어 두 시기 모두 사회를 특정 목표를 향하여 변화시켰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강한 국가라고 할 때 세 가지 점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① 강제할 수 있는 능력, ② 특정 집단이나 계급의 정치적 영향력으로부터 차단된 상대적 자율성, ③ 개입주의가 그것입니다. 개발국가론의 시각은 식민지 정부와 박정희 정부는 ①②③을 모두 가지고 있는 강한 국가라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다 정확히 표현한다면 전시 통제에 들어가기 전까지 식민지 정부는 ①②를 가지고 있었지만 ③은 대단히 미약하였습니다. 전시에 전면적으로 등장하는 개입주의 이미지를 그 이전 시기까지 확대 적용하려고 한 잘못은 주로 1960년~1970년대 박정희 정부의 고도성장을 설명하기 위한 강한 국가론을 식민지시기에도 그대로 투영하고자 한 데 기인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국가 주도로 설명하는 공업화론의 설득력이 전시로 한정된다고 한다면, 그 이전 시기에 전개된 공업화에 관해서는 다른 설명 요인을 찾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먼저 식민지시기에 전개된 공업화의 실태를 몇 가지 수량 지표로 보이교자 합니다.

그림 8-4는 공장 수와 종업원 수 및 회사의 납입 자본금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공장의 범위는 시기마다 약간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직공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체를 말하고, 그 이하는 가내공업으로 분류됩니다.

전체 공장 수는 1910년~1928년에 151개에서 5,342개로, 그리고 1928년~1940년간에 4,010개에서 7,142로 증가하였습니다. 1928년에 공장 수 통계가 두 가지로 제시된 것은 그 이전과 이후에 공장의 범위가 약간 좁게 변경되었기 때문입니다.

1910년~1920년, 1920년~1928년, 1928년~1940년의 연평균 증가율을 구해보면 각각 30%, 12.5%, 4.9%로 나타나 공장 수 증가율은 초기로 갈수록 더 높았습니다. 이것을 해방 후의 수치와 비교하면 1955년~1970년, 1970년~1990년의 제조업 사업체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6.9%와 5.4%였습니다. 식민지 초기의 공장 수가 적었던 탓도 있지만, 그 증가율은 해방 전이 오히려 높았습니다.



이를 민족별로 구분해 보면 1910년대에 조선인 공장이 전체 공장의 25.8%였다가 급속히 비중을 높여 1940년에는 60.2%에 달하였습니다. 영세한 규모에는 조선인 공장이 많고 대규모의 근대적인 공장은 대부분 일본인 공장이었기 때문에 이러한 민족별 구성비는 실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일본인 자본의 진출로 조선인 자본은 정체하거나 몰락하였다는 종래의 통념과는 달리 조선인 공장이 매우 빨리 증가하였고, 더구나 구성비를 크게 높였다는 사실은 주목할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과정에서 조선인 공장에서도 규모를 키운 것이 출현하였고, 초기에 정미소나 양조장과 같이 일부 업종에 치우쳤던 것이 점차 다양한 업종으로 진출하기도 하였습니다.

공장 종업원 수는 연두색 실선이며 오른쪽의 로그 눈금, 단위는 천 명으로 이 시기 15,000명에서 약 30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1910년, 1920년, 1930년대의 연평균 증가율은 각각 16%, 6.3%, 11.2%로 나타났는데, 해방 후인 1955년~1970년과 1970년~1990년의 증가율인 10.1%와 6.5%와 비교하여 낮지 않았습니다.

한편 회사의 납입 자본금은 빨간색 실선으로 오른쪽의 로그 눈금, 단위는 백만 엔으로 이 시기에 빠르게 증가하였습니다. 납입 자본금을 GDP 디플레이터로 나누어 1935년 불변가격으로 제시하였는데, 그 연평균 증가율은 12.9%로 나왔습니다.

공장 통계의 증가율만 보면 이 시기 공업화의 진행이 매우 빨랐음을 알 수 있지만, 공업화의 수준은 여전히 낮은 단계를 벗어나지 못했음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공장 종업원 수는 1940년에 30만 명으로 늘었지만, 이 규모는 전체 유업자의 3.3%에 불과하였습니다.

공장보다 규모가 영세한 가내공업의 비중이 훨씬 높았습니다. 공업생산액 중에서 가내공업의 비중이 1920년대 초까지 과반을 넘었으며, 공업화가 크게 진전된 1930년대 말까지도 20%대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 비율은 급속히 떨어졌지만, 가내공업 생산의 절대 수준은 중일전쟁 발발 때까지 오히려 늘어나고 있었습니다.



당시 가내공업 중에는 상품생산을 영위하여 공장으로 성장한 경우도 있었지만, 대체로 자가 소비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공업화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자급적인 가내공업이 구축되지 않았던 것은 대만과 대비됩니다. 조선은 대만과 달리 농업노동의 계절적 편중이 심해 농한기가 길었는데, 그때에는 효율성이 낮더라도 농가가 부업 형태의 가내공업을 영위하는 것이 오히려 합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이 시기 공업생산에는 일본 대자본의 진출에 의한 근대적 공장으로부터 중소 영세 규모의 공장, 그리고 저변에는 자급적 가내공업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스펙트럼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생산과 무역 통계의 제품을 서비스를 제외하고 중간재와 최종재로 나누고, 최종재를 다시 생산재와 소비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재란 생산과정에 투입되어 1회 사용되는 것으로 끝나지만, 생산재는 일정 기간 사용되는 내구재를 말합니다.

제품의 분류별로 조선 내 소비를 생산-수이출+수이입의 산식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간재는 산업 간 분업 관련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최종재 중에서 소비재와 생산재의 조선 내 소비는 각각 소비수준과 투자수준을 보여줍니다.

그림 8-5에서 생산구성이란 전체 생산 중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하고, 소비구성이란 전체 소비 중에서 각 제품이 차지하는 비중을 말합니다. 그래프에서 생산구성은 P, 소비구성은 C로 각각 표시하여 구분하였습니다. 가액이 아니고 구성비로 제시한 것은 물가변동의 영향을 배제하여 시기별 추이를 비교하기 위한 것입니다.

먼저 그림 8-5의 패널 A는 전체 제품을 소비재, 생산재, 중간재로 나눈 다음, 생산과 소비에서 각 제품의 구성비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생산 구성비는 파선으로, 소비 구성비는 실선으로 각각 나타냈습니다. 예컨대 생산에서는 소비재의 구성비는 파란색 파선으로 1918년~1940년에 85%에서 58%로 급격히 하락하였고, 소비에서의 소비재 구성비는 파란색 실선으로 같은 기간에 비슷하게 하락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소비재의 구성비가 크게 하락한 것은 그래프에서 읽을 수 있듯이 중간재와 생산재의 구성비가 크게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중간재 구성비의 급속한 상승은 조선 내에서는 물론 조선과 일본 간의 산업간 분업 관련이 심화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생산재는 비중은 작았지만 빠르게 상승하였습니다. 특히 생산재의 생산구성과 소비구성은 1918년에 각각 1%와 4%였는데, 1940년에는 각각 4%와 11%로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조선 내 투자가 일본으로부터 생산재의 수입에 크게 의존하는 형태로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림 8-5의 패널 B는 농산물 소비재와 공산품의 소비재 및 생산재로 한정하여 각각의 생산과 소비의 구성을 본 것입니다. 농산물 소비재의 구성비가 급격히 하락한 것과 대조적으로 공산품 소비재나 생산재의 구성비가 빠르게 상승하였음이 뚜렷하게 드러납니다.

농산물 소비재의 경우 생산구성(빨간색 파선)이 소비구성(와인색 실선)보다 상당히 높았던 것은 앞에서 살펴본 쌀의 이출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공산품 소비재와 생산재의 생산구성(보라색, 분홍색 파선)은 1918년~1940년간에 걸쳐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습니다.

이 시기 물자생산이 꾸준히 늘어났기 때문에 구성비의 상승은 공업생산의 절대 수준이 이보다 훨씬 빨리 증가했음을 뜻합니다. 즉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여기서 공업화가 1930년대뿐만 아니라 통계가 제시한 1918년 이후 지속되어 온 현상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산품의 소비구성이 생산구성보다 상당히 높았다는 사실은 조선은 무역을 통하여 자신의 공업생산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공산품을 소비하고 있었음을 말합니다. 이것은 전술했듯이 쌀의 이출에 힘입어 조선에서 공산품 시장이 앞서 확대되었고, 이에 유인되는 형태로 조선 내의 공업생산이 늘어났음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공산품 소비재의 소비구성이 1918년~1935년에는 15%에서 26%로 늘어났지만, 1935년~1940년에는 26%에서 22%로 하락하였다는 점이 주목됩니다. 이 시기 공산품 생산재의 소비구성은 계속 높아진 것과는 대조되는 현상입니다.

그래프로 제시하지 않았지만, 공산품 소비재를 세분해서 보면 방직제품이나 식료품 등의 소비구성 하락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일전쟁을 전후한 시기에 조선에서는 대중 소비재의 소비가 더 이상 증가하지 못하고 감소로 돌아섰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조선에서 수입에 의존하던 제품이 공업화가 진전됨에 따라 수입대체가 이루어지는 사례를 몇 가지 들겠습니다. 그림 8-6은 당시 가장 중요한 대중 소비품인 면직물의 조선 내 생산과 수입 및 수출입, 그로부터 구한 국내소비의 추이를 보인 것입니다. 모두 1935년 불변가격으로 제시하였습니다.

먼저 면직물 소비액은 식민지 초기에 3,000만 엔에서 1934년에는 6,700만 엔으로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돌아섰습니다. 조선 내 소비는 대부분 수입품으로 충당되었는데, 1930년대에 들어와 조선 내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 수입입을 대체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면직물의 수입입액을 생산액과 수입입액의 합계로 나누어 구한 수입입의존도를 보면, 식민지 초기에 80%가 넘는 수준에서 서서히 떨어지다가 1930년대 조선 내 면직물 생산이 급증하면서 1940년에는 5%로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일전쟁 이후에는 원료 면화의 공급제약으로 조선 내 생산도 감소로 돌아섰지만, 수입입은 그에 앞서 급락하였습니다. 중일전쟁 이전에도 시기에 따라 진행속도가 달랐지만, 면직물의 수입입이 조선 내 생산으로 대체되어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하나 그림 8-6은 고무신의 사례를 보여줍니다. 고무신의 소비는 1910년대에 미미한 수준에 그쳤지만, 1920년대부터 급증하여 1937년에는 6,500만 엔에 달하였습니다. 3.1운동 이후에 고무신이 크게 유행하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주로 일본에서 들여왔지만, 조선 내 생산이 빠르게 늘면서 수입입품을 대체하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수입입의존도의 지속적인 하락 추이를 통하여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생산이 감소로 돌아선 것은 전술한 면화와 마찬가지로 전시 하에서 고무 원료 공급의 제약 때문입니다. 앞의 면직물의 경우 방적과 직물 생산을 겸하는 대기업이 중심이었고 조선인 기업인 경성방직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조선에 진출한 일본의 방적회사가 수입대체 과정을 주도하였습니다. 이에 비하여 고무신의 경우는 소규모 공장이 중심이었고 초기 일본인의 생산으로 시작했지만, 점차 조선인 주도로 바뀌어 갔습니다.

화학비료의 경우는 일본의 대자본인 일본질소가 조선에 진출하면서 그 수입대체가 일거에 이루어진 사례라 할 수 있습니다. 조선에서는 산미증식계획이 추진되면서 화학비료의 사용이 늘어나기 시작하였고 당초 일본으로부터의 수입에 의존하였습니다.



일본질소가 함경도에 일본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대규모의 수력 발전소로 장진강, 부전강, 허천강 발전소를 세웠고, 전기를 이용하는 최신 기술의 화학비료 공장인 조선질소 공장이 1930년에 조업을 시작하면서 생산이 급증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조선 내 비료 소비도 크게 늘어나 1940년에는 2억 엔에 달하였습니다.

한편 수입대체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던 제품도 있는데, 기계류가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기계류의 조선 내 소비액은 초기에 600만 엔에서 1940년에는 2억 엔을 넘을 정도로 급속히 신장하였는데, 그 수입의존도는 80% 전후한 수준으로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설비투자가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낮은 기술력으로 인하여 조선 내에서 조달하는 데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실 해방 후 얼마 전까지도 기계류의 대일 무역 역조 문제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이상 공산품 시장의 확대는 품목에 따라 양상이 달랐지만, 조선 내 공업화를 유발하였습니다. 면방직이나 화학비료 공업은 수입에 의존하는 조선 내 시장 규모가 일정 수준에 달하자 이 시장을 노린 일본 대자본의 직접투자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고무공업은 먼저 고무신이라는 당시로서는 신제품이 수입되어 시장이 개척된 다음, 이 시장을 기반으로 하는 조선 내 소규모 공장이 다수 출현한 경우라 할 수 있습니다. 개도국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1차산품을 수출하고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러한 구조가 계속 고착될 수 있습니다.

그로부터 벗어나려면 시장 확대의 기회를 포착해서 활용하는 민간 기업가의 창의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앞에서 조선인 공장 수가 빠르게 늘어났고, 그 진출 분야도 다양해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대규모 자본과 높은 기술이 요구되는 분야에서는 일본인 기업가가 주도하였지만, 그렇지 않은 분야에서는 진취적인 조선인 기업가들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었음을 시사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별 사례들의 동향은 공업 전체에서도 확인됩니다. 앞에서 보았던 그림 8-2에서 공산품 전체의 수입의존도를 구해보면 1918년에 39%에서 1930년에 49%에 달한 후 1940년에는 35%로 하락하는 완만한 역 U자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차이가 보입니다. 기계기구와 금속 공업은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반면, 식료품은 낮았습니다. 비료의 조선 내 생산으로 화학공업의 수입 의존도가 크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방직공업의 수입 의존도가 앞의 면직물과 차이가 난 것은 견직물이나 인조견직물과 같이 수입에 의존한 직물의 비중이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 8-4

## 전시체제

그런데 이러한 공업화의 양상은 전시 통제기로 들어가면 변질하게 되는데, 그 실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중일전쟁 이후 전시 통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여기서는 주요 전시 통제법을 살펴보는데, 이들은 일본과 조선 및 대만에도 동시에 시행되었습니다. 먼저 '수출입품 등에 관한 임시조치법'(1937)은 품목을 지정하여 수출이나 수입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그 대상은 수출입품 이외에도 그것을 원료로 하는 제품으로 확대되어 물자에 대한 통제가 대부분 이 법령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자금의 통제를 위해 '임시자금조정법'(1937)이 시행되었습니다. 그에 따르면 각종 사업을 갑·을·병의 등급으로 나누어 정책적인 우선순위에 따라 자금을 배정하였습니다.

나아가 1938년 국가총동원법을 제정하여 정부에 광범위한 통제 권한을 위임하였고, 구체적인 통제 내용은 별도의 칙령으로 정하였습니다. 앞의 두 통제법이 물자와 자금에 대한 것이라면, 노동에 대한 통제는 국가총동원법에 의거해 실행되었습니다.

각종 가격도 통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예컨대 가격 등 통제령은 제2차 세계대전의 발발로 물가가 등귀하자 1939년 9월 18일자로 모든 가격을 동결하였습니다. 상품가격에 그치지 않고 운임, 임금, 임대료 등으로 그 대상이 확대되었고, 회사의 이익금 처분과 소작료도 통제되었습니다. 즉 상품가격뿐만 아니라 거기에 투입되는 생산요소의 가격도 통제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각종 물자와 그 원료의 수급 조건은 계속 변할 수밖에 없고, 생산조건이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고정할 경우 생산 자체가 위축되는 등 비효율이 야기되었습니다. 이를 조정하기 위해 정부는 그때그때 품목별로 새로운 판매가격을 지정하지 않을 수 없었는데, 당시 총독부 고시(告示)의 압도적 부분은 이들 판매가격에 관한 고시였습니다. 중요 품목에 대해서는 정부가 가격기구를 대신하려고 했던 셈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식은 물자의 과잉과 부족이 조정되지 못한 채 생산을 위축시키고 암시장을 만연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이를 단속하기 위해 경제경찰이 동원되는 등 통제가 더욱 강화되어 갔습니다.

나아가 국가총동원법에는 시장경제체제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재산권 보호와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총동원을 위해 필요한 경우 공장, 사업장, 선박, 기타 설비를 관리, 사용, 수용할 수 있었습니다. 필요한 경우 설비의 신설, 확장, 개량을 제한하였고, 기존 사업의 설비의 양도, 위탁, 폐지, 휴지, 그리고 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을 명령할 수 있었습니다.

즉 전시라는 한정이 붙기는 했지만, 행정관청은 전쟁목적을 위해 물자, 자금, 노동력을 자유자재로 동원할 수 있었고, 그 결과 사적 자치를 기본 원리로 하는 민법이나 상법은 이들 전시 통제법에 의해 광범위하게 제약을 받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전시 통제체제는 종래의 시장경제체제와는 질적으로 다른 체제로 변모해 갔습니다. 체제 원리로서 시장이 모두 폐기된 것은 아니지만, 상당 부분이 계획과 통제로 대체되었습니다. 단순히 가격을 규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시장체제를 뒷받침해왔던 제도적 장치로서 소유권과 계약 및 영업의 자유를 보장하는 민법과 상법 등이 정부의 광범위한 개입으로 사실상 형해화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에 공업의 실태를 보여주는 자료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총독부의 통계연보는 1941년 이후에는 공식적으로는 발간되지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가격이 통제되고 있어 암거래된 경우가 적지 않았기 때문에 가액 통계만으로는 실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표 8-3은 생산량이 파악되는 품목에 한정하여 전쟁 직전인 1936년을 100으로 한 생산지수의 추이를 보여줍니다. 먼저 광물, 철, 전력과 같이 생산력확충계획의 대상이 된 업종은 그 생산을 전시말까지 급속하게 늘린 경우가 많았습니다. 여건에 따라 품목 간 차이가 큰 것으로 보이는데, 정책적 지원 대상이 된 품목들은 1944년 시점에서도 1936년에 비해 몇 배의 증산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에 비하여 대중 소비품의 경우에는 중일전쟁 발발에서 1930년대 말에 걸쳐 대체로 감소로 돌아선 것으로 보입니다. 농작물의 경우에도 감자를 제외하면 중일전쟁 이후 감소 경향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식물의 경우 면직물은 1938년에 정점에 달한 후 감소로 돌아섰지만, 견직과 인견직물의 생산이 그 이후에도 늘어나고는 있었습니다. 주류의 경우에도 대체로 1930년대 말에 생산의 정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즉 생산력확충계획 대상 업종과 그 외의 농업을 포함한 대중 소비재 산업 간에는 전시 하에서 생산 동향에 현격한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배후에는 자금이나 자원을 생산력확충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나머지 분야에는 그만큼 제약을 가하는 전시 경제통제가 놓여져 있었음은 물론입니다.

이러한 생산 동향의 분화는 중일전쟁 이후 시작되었지만, 공업생산 전체는 산업별 GDP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1940년까지 증가하였습니다. 다만 그 이후는 정책적 지원이 집중된 분야와 그 외의 분야 간에 상반된 생산 추이가 더욱 심화되어 갔을 것으로 생각되며, 전체적으로는 축소되어 갔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한편 그림 8-7에서 볼 수 있듯이 무역도 1930년대 말부터 감소로 돌아서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1943년부터 현저하게 감소하였습니다. 다만 1940년대 초에는 이입보다는 이출의 감소가 더 빨랐지만, 1944년에는 결국 물자의 순 유출이 일어났습니다. 공산품 소비에서 수이입품의 비중이 컸음을 생각하면 이것은 전시경제에서 커다란 공급제약으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중일전쟁 이전까지의 공업화와 전시 공업화는 그 의미가 상당히 달랐음에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공산품 소비재를 중심으로 공업화가 진행되었고, 시장과 자금 면에서 농업의 수출산업화와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었다고 한다면, 전시 공업화는 정부의 통제에 의하여 대중 소비재의 생산과 소비를 억제 또는 희생하면서 생산력확충계획 산업으로 자원의 집중이 이루어졌습니다.

두 시기 모두 공업의 상대적 비중이 높아졌다는 의미에서 공업화의 진행을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그 전개 메커니즘은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앞에서 태평양전쟁기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자금의 유출 또한 격증하였음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표 8-1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시기의 자금 유출은 일본의 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 매입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시기 조선의 금융기관이 일본의 유가증권 매입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은 예금이 급증했기 때문인데, 그 배경에는 전시에 여러 경로로 유입된 자금이 지출되면서 조선에서 명목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시하 대중 소비품의 공급은 크게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면 급속한 인플레이가 진행될 수밖에 없었으므로 저축을 장려하거나 강제하는 자금통제가 불가피해진 것입니다.

저축 강제는 예컨대 급여 등을 지급할 때 저축을 미리 공제하여 그 지출을 제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43년 자료에 따르면 농민으로부터 쌀을 공출하게 되면 그 판매대금의 20%, 그리고 생산장려 보조금의 경우는 60%를 공제하여 금융조합의 자신의 계좌에 예금으로 묶이게 됩니다.

1944년에는 판매대금 공제율이 30%로 인상되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금융조합의 예금이 크게 늘어났고, 그것은 식산은행이 발행한 채권을 매입하거나 일본의 유가증권을 매입하는데 운용되었던 것입니다.

조선은행의 통화발행은 지난 7주차 강의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일본은행권을 지불준비로 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조선은행이 통화를 남발하지 못하게 하고 두 지역 통화의 등가교환을 유지하게 만드는 장치였습니다. 그런데 거꾸로 전시에서처럼 일본으로부터 자금 유입이 급증하는 경우에는 조선은행권의 발행도 급증하게 되지만 이를 막는 장치는 없었습니다.

유입된 자금은 일본으로부터 물자의 이입에 쓰여질 수 있기 때문에 일본의 자본수출은 통상 물자의 유입을 수반하였습니다. 유입 자금으로 무역수지 적자를 메우는 것이 그 전형적인 형태였습니다. 이에 대해 전시의 저축 강제에 의한 일본의 유가증권 매입은 조선에 물자가 유입되는 대신에 일본의 유가증권 보유가 늘어나게 된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전시하에 일본의 물자 공급능력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인플레이가 일본으로 파급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시말로 가면 자금통제의 한계로 인해 조선은행권의 회수가 점차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로 인한 인플레이의 압력을 가격통제로 억눌렀지만, 해방으로 통제 권력이 사라지자 하이퍼 인플레이로 폭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전시말의 일본의 자본수출은 인플레이 수 출로 변질되어 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시기가 다른 시기와 구별되는 가장 큰 특징은 물론 식민지 체제였다는 점입니다. 더구나 중일전쟁을 기점으로 상이한 두 체제를 경험하였습니다. 먼저 중일전쟁 이전은 지난 강의에서 살펴본 제도변화를 전제로 해서 사실상 단일한 시장과 화폐를 가진 지역통합 체제로 편입되어 있었고, 식민지 정부는 개입주의적인 산업정책을 추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 시기에는 쌀 이출을 중심으로 하는 농업개발이 이루어졌는데, 이는 개항기로부터 이어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업화를 위해 변변한 산업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쌀의 수출산업화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면서 공산품 소비재를 중심으로 하는 공업화가 진전되었습니다.

그리고 제1부의 주제별 장기 추이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 시기는 다른 시기와 비교해서 아직 농업 중심의 사회였고, 출산율이 높고 저축률은 낮아 인적 및 물적 자본의 형성이 미약하였으며, 그로 인해 생산성도 낮았습니다.

경제성장률은 해방 후와 비교하여 절반 정도에 머물렀으며, 식민지 지배 민족이 근대적 기술과 자본에서 압도적 우위에 있었고 지주제 또한 발달하여 있어 불평등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 높았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 미개발된 사회가 상대적으로 더 개발된 사회에 지역통합 방식으로 편입되었을 때 어떠한 경제적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전시에는 앞의 시장경제체제와는 다른 체제로 전환되었습니다. 시장보다는 계획과 통제의 원리가 지배하는 시기였습니다. 이 시기 공업화는 정책적으로 선정된 부문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었는데, 공업화를 위한 산업정책을 극한으로 추진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전시라는 특수 상황으로 인해 한쪽에 자원이 집중된 반면 다른 쪽이 희생되었기 때문에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 할 수 없습니다. 앞 시기에 나타난 시장 원리에 따라 전개된 공업화와 뚜렷이 구별됩니다. 이 시기는 짧았지만, 해방 후에 미친 영향은 컸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은 후술하듯이 이러한 통제체제를 상당히 이어받았고, 한국의 경우에도 전시체제가 산업정책에 미친 영향이 적지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한국경제성장사> 여덟 번째 강의로 '식민지기 경제개발'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강의에서는 '해방, 분단, 전쟁과 원조경제'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Lecture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WEEK  
8

## Economic development during the colonial period

8-1

### Exports of Japanese capital

Hello, everyone. This is Kim Nak Nyeon, teaching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It is a pleasure to see you all again. In the Week 8 lesson, we will explore at what happened to the economy as Joseon became part of the Japanese Empire during the colonial period.

Japan's capital exports were instrumental in transforming the colonial economy. First, let us take a look at capital inflows and outflows over time, and in what amounts. In the 1920s, there was a large influx of policy funding associated with a plan for increasing rice production, as Japan had promoted the industrialization of rice exports. This had a significant impact on not only the development of agriculture but also the industrialization of Joseon. We will examine this in more detail.

After the 1930s, the inflow of both private capital and policy fund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industrialization accelerated. However, after the Sino-Japanese War, and especially during the 1940s, controls were tightened and the existing market economy was transformed into a controlled economy. The experience of a controlled economy, although short-lived, had a profound effect on both North and South Korea after liberation. In this lecture, we will review major economic changes that took pla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and assess their implications.





Japan was a net importer of capital if the capital exported to its colonies and semi-colony of Manchukuo is excluded. The only exception was the period prior to World War I, when it was an exporter of capital to Europe. During World War I, the entry of European countries into the war created a void in the world market, and Japan was able to seize this opportunity and achieve a trade surplus. However, after the war, Japan again opened up a trade deficit and faced a foreign currency deficit.

Despite these unfavorable circumstances, Japan continued accelerating capital exports to its colonies. As a latecomer, Japan was more aggressive in exporting capital to its colonies than other colonial powers. Here, we will examine the channels through which Japan's capital exports occurred, and how the characteristics of these exports changed over time.

Table 8-1 summarizes Japanese capital flows, showing how much flowed into or out of the country and through which channels. Values are averaged over set time periods. For example, for the 11 years from 1910 to 1920, the gross government funding amounted to JPY 26 million. The annual average is obtained by dividing the cumulative value of the flow of funds into Joseon by 11 .

The table is grouped into timeframes due to the limitations of the data. The first period covers the 1910s and 1920s, while the 1930s and beyond are divided into three periods: the Manchurian War of 1932 to 1937, the Sino-Japanese War of 1938 to 1941, and the Pacific War of 1942 to 1944. The Manchurian Incident occurred in 1931, the Sino-Japanese War broke out in 1937, and the Pacific War began in 1941, so these periods roughly correspond.



Some additional explanation of inflows and outflows in the table is required. Administrative expenses are the supplementary funds provid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to support the finances of the Government-General in Joseon. Military expenses were the expenses incurred by the stationing of Japanese troops in Joseon paid directly from the Japanese treasury, rather than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a portion of military expenses was covered by Joseon; the figure in the table represents net inflows accounting for that. The Government-General of Joseon issued bonds sold in Japan, the proceeds of which were mainly used to build and improve railroads. The government debt in the table represents net inflows of government bonds issu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minus principal repayments.

Depository funds at the time were the deposits made at post offices in Joseon, which had many of the same functions as banks, and which were under the jurisdiction of the Japanese Ministry of Treasury (MOT). In other words, these funds went to Japan. The capital would then flow back to Joseon when the MOT made a loan to a local government in Joseon underwrote a bond. The value of deposits shown in the table represents net inflows (inflows minus outflows). You can see that inflows were higher in the 1920s, but turned negative in later years, with outflows being much more significant.

Specialized financial institutions refer to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the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and other financial cooperatives that issued bonds to raise funds in Japan. Here the table again shows values in terms of net capital inflows. Corporate funds refer to net inflows of funds through capital contributions, loans, or issuance of corporate bonds, mainly by private companies. The purchase of Japanese securities, meanwhile, refers to the purchase of securities, including government bonds issued by Japan, by financial institutions in Joseon, resulting in an outflow of funds.



Using Table 8-1, we can see how Japan channeled capital and the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se capital flows over time. The 1910s were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large influx of funds from the Japanese treasury used to build the foundation for colonial rule. Corporate funds also accounted for a large proportion of and capital contributed to establishing special financial institutions, such as the Bank of Chosen and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The 1920s saw a surge in the flow of money through these special financial institutions. Funding for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in Joseon was provided primarily by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and Oriental Development Company, which raised the money by issuing bonds in Japan. And a substantial portion of these bonds was acquired using the deposits managed by the Japanese Ministry of Treasury. This indicates that the Japanese government was actively involved in financing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colonies.

Compared to the trends in policy funding, the inflows of private funds were relatively stagnant during this period. During the Manchurian crisis, which lasted between 1932 and 1937, direct investment by the private sector increased dramatically, while flows of government funds reversed the trend of the previous period. Fewer funds came from specialty financial institutions as well, which was due to the fact that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faced a major obstacle when Japanese farmers rebelled amid collapsing prices of Japanese rice. Net inflows from the sale of sovereign bonds issued by the Government-General were also negligible in this period due to higher principal repayments and the suppression of new bond issuance.

In contrast, private investment flows increased significantly, mainly in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and electricity sectors. These greatly accelerated Korea's industrialization in the 1930s.



During the Sino-Japanese War from 1938 to 1941, inflows of money through various channels skyrocketed. The Japanese treasury issued new government bonds to build and extend railroads, and inflows in the form of military expenditures also surged. Funds channeled through special financial institutions like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also increased, and the nature of these funds changed from supporting agriculture to supporting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in the 1920s. Direct investment by private capital also grew rapidly.

The Pacific War years from 1942 to 1944 saw inflows grow even more intense, the bulk of these flows comprising proceeds from government bonds, military expenditures, and private capital. However, we can see that flows through special financial institutions shrunk. This is not because these organizations (such as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and others) issued fewer bonds, but because what used to be issued in Japan became increasingly issued in Joseon. This owes to the fact that materials and goods were being sourced more and more from within Joseon itself.

Furthermore, vast amounts of money flowed into Japan as financial institutions based in Joseon purchased Japanese securities. In other words, outflows spiked at the same time as inflows. This is the result of capital controls designed to curb the rapid increase in capital exports from raising nominal incomes and increasing private consumption.





## 8-2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following section, we will explore in more detail the development of colonial investments to understand how they changed the economy of Joseon, focusing on agricultural development in the 1920s, industrialization in the 1930s, and the transformation of capital exports during the Pacific War.

Colonial Joseon was an overwhelmingly agricultural society, and rice was the dominant agricultural crop. The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lan, which ran from 1920 to 1934, was driven by the need for more rice in both Joseon and Japan. As a response to the March 1 Independence Movement, the Government-General saw a need to promote policies with outcomes that could appease farmers in Joseon, such as increased rice production. Japan was in the process of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and its population was growing rapidly. As a result, domestic rice production could not meet demand, and the country relied on imports.

In 1918 riots broke out in Japan caused by a spike in rice prices; these protests were severe enough to result in the resignation of the Japanese cabinet at the time. However, rice yields per danbo (a traditional unit for measuring area) in Joseon were only half that of Japan, so the country had a lot of room to grow more rice. Furthermore, Joseon was in the yen currency zone, so there was no need for Japan to buy its rice with foreign currency.

To increase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plan to increase production promoted agricultural improvement and irrigation projects that increased inputs of fertilizer and labor. In particular, as agriculture in Joseon was frequently affected by droughts and floods, it was considered critical to build and maintain irrigation facilities.



But doing so required a lot of money. The Government-General's strategy was to have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loan out the funds for building the irrigation facilities. The farmers and landowners whose fields were targeted for irrigation were to form irrigation "unions" and pay union dues, which could then be used to pay back the loan. And so we can see that the farmers who joined these irrigation unions reaped the benefits in the form of increased production, but also had to pay union dues.

However, depending on the location of the farmland, the benefits of irrigation differed, and thus union dues were calculated differently as well. This produced conflicts of interest among the farmers. When the farmers failed to reconcile their differences, this often resulted in a union never being formed.

The Government-General provided not only financial but also institutional support to facilitate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irrigation unions. The number of irrigation unions reached 190 in 1935. We can here compare rice production before and after the program was implemented.

According to the data recorded between 1927 and 1937 in a government report called the Summary of the Joseon Land Improvement Project, the rice yield increased from one to three suk (a traditional measurement of volume) per danbo (a traditional measurement of land area) after the project was implemented. We can see that the irrigation project increased per danbo rice yields by two suk.

At that time, if the landowner rented the land to a tenant farmer, he received half of the harvest as rent, so half of the increased yield could be seen as the landowner's share. And because it was the landowner who paid the union dues, comparing the two periods, it is estimated that they paid 40 percent to 60 percent of the increased income as union fees.



While this process may have increased the fertilizer bill or farming costs for the landowner, the economics of the irrigation project was favorable overall. However, there was a wide variation in performance among the unions. In some cases, rice production did not increase as expected, making it difficult for profits to cover the union dues.

Let us examine Figure 8-1 to analyze the production, trade, and consumption trends of rice during the colonial period. When it comes to rice production, we can see a statistical disconnect, with a change in the way production was measured in 1936, resulting in a 26 percent increase in estimated yields over the old method. How to handle this has been an issue ever since.

Here, we assume that the previous error of 26 percent reflects reality. This is because yield surveys were conducted to calculate the statutory land value per parcel from 1910 to 1918, when the colonial government conducted a land survey. And we assume that the error climbed by one percent per year, which is the average annual increase from 1918 to 1936.

Figure 8-1 shows the result in Yield\_Adjusted, which shows that rice production was on the rise until the late 1930s, albeit with fluctuations due to weather. In addition, the average rice yield per danbo increased from 0.83 suk in the first half of the 1910s to 1.36 suk by the late 1930s, so we can see that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saw some success. However, production plummeted in 1939 due to an unusually poor harvest, and while it recovered to some certain extent, growth in rice yields stagnated during wartime. Exports and imports of rice to and from Japan at the time were officially categorized as “outbound” and “inbound” transactions. But we will not distinguish between these terms unless necessary. We can see that exports continued to increase very rapidly until the mid-1930s. The percentage of exports of Joseon’s total rice output increased from five percent in the early days of the colonization to 50 percent in the mid-1930s.



With the exception of the late 1930s, rice was the country's most important export item, and farmers were directly affected by export trends. This is in sharp contrast to the current situation, where most exports are manufactured goods, and companies in the manufacturing sector are responsible for their own exports. We can calculate rice consumption in Joseon by subtracting rice exports from gross rice yields and adding rice imports. We can see in Figure 8-1 that rice consumption growth was flat up to the Sino-Japanese War. Large fluctuations in rice production and exports during wartime led to higher consumption levels, but this needs to be factored in with fluctuations in rice stocks. Because of rapid population growth, a graph of per capita rice consumption would show a downward trend until the mid-1930s.

This means that Joseon rice exports grew even as Joseon consumed less of its own rice. These exports are sometimes referred to as "starvation exports." Some Korean history textbooks attribute the decline in rice consumption in Joseon to the Japanese stealing rice, and claim that the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lan had negative effects on Korean farmers. However, the economy of the time was a market economy, and the rice trade was left to the free will of the parties involved. So the decline in per capita rice consumption must be explained by economic logic.

We can identify two factors that may have contributed to the increase in exports outpacing the increase in rice production and the subsequent decline in per capita rice consumption in Joseon. For one, this was a time when the system of landlordism was thoroughly ingrained in Korean society, and a significant amount of rice harvested by tenant farmers was concentrated in the hands of landowners as rent. More so than the farmers themselves, landowners treated rice as a commodity. The structure through which rice was produced and distributed was a factor that promoted its commodification, and thus its export to Japan. We will address this in more detail later.





Another factor is that, as the Joseon economy integrated with the rice-scarce Japanese economy, the price of Joseon rice approached or was linked to Japanese rice, which increased the price of rice and discouraged rice consumption in Joseon. Nowadays, per capita rice consumption continues to decline as incomes rise, but back then, eating rice for every meal was a symbol of wealth.

For the average tenant farmer, most meals were made up of millet or other grains. Farmers could not afford to eat the rice they produced because it was exported in large quantities, making it scarce and expensive.

Figure 6-3 shows that in the 1900s, before the annexation of Korea, rice prices in Joseon were around 70 percent of Japanese rice prices. Prices approached 90 percent in the 1920s, and hovered around that level from the 1930s onward. As Joseon rice became a key export commodity, it gradually approached Japanese rice in terms of quality, owing to improved drying and processing techniques. This was also a factor that reduced the price difference between Joseon rice and Japanese rice.

But just because Joseon's rice consumption decreased does not mean that exporting rice caused living standards to decline. Here is an analogy. Nowadays, matsutake mushrooms are rare and very expensive, and so for ordinary people are delicacies. But one reason for this is that they are exported in large quantities to Japan. The Japanese love of matsutake mushrooms is unmatched, and the price of these mushrooms is very high, even in Japan.

And so, if a South Korean matsutake farmer increases production, but exports more, domestic consumption of matsutake mushrooms will decrease. But this is not to say that Korea's standard of living would decline. The money from the sale of the matsutake mushrooms could be used for other consumption or savings. Matsutake mushrooms are rarer and much more expensive than rice, but the economic logic behind the price and availability of both is the same.



So what did the export industrialization of rice and other agriculture mean for the economy of Joseon? Table 8-2 shows the trade balance between Joseon and Japan by trade item for five different years, starting in 1918. In the table, black numbers represent trade surpluses, and the red numbers represent deficits. We can observe an apparent trade structure of agricultural outflows and manufactured goods inflows.

Textiles dominated imports until the first half of the 1930s, followed by consumer goods, including food products. As Korea continued to industrialize, imports of manufactured goods such as machinery and metal products increased significantly. We can see that the agricultural trade surplus with Japan significantly offset the deficit in the industrial sector, and remained at 70 percent until 1935.

What the rice trade surplus did cover was made up by other inflows of funds and capital from Japan. After the Sino-Japanese War, the significance of the rice trade surplus as a source of funds for the importation of manufactured goods rapidly declined. However, the plunge in the agricultural trade balance in 1940 was due to a disastrous rice harvest the year before, which was mentioned earlier.



In short, the increase in exports and reduced rice consumption in Joseon did allow for increased imports of other food products, such as grain from Manchuria, to offset the decline in domestic rice consumption. But most of the proceeds of the rice exports resulted in increased consumption of industrial products in Joseon. Thus we should note that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industrial products in Joseon was thanks to increased exports of rice, which were in turn a result of the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However, the fact that the expansion of consumption of manufactured goods was accomplished through imports also means that industrial production in Joseon lagged behind. Figure 8-2 shows the overall trend in import trade dependency for manufactured goods in select industries. In this case, import dependency is calculated by dividing the value of imports by the sum of production and imports. We can see some sectoral differences in the time before industrialization was in full swing (that is, the 1920s), when Joseon was reliant on a rice-based trade surplus and becoming increasingly dependent on imports of manufactured goods. However, we can also see that industrial production within Joseon started satisfying domestic demand; moreover, the trend rapidly intensified, reducing dependency on imports in the 1930s. In other words, the formation of a market for manufactured goods in Joseon was a factor that attracted private capital from Japan and stimulated industrial production in Joseon.

With this in mind, it could be argued that the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lan laid the foundation for the industrialization of Joseon, as rice exports created a trade surplus which in turn created a domestic market for industrial goods.

It is also worth noting that at the time, Joseon was a country where land ownership was heavily concentrated among the landholding class. Figure 8-3 illustrates this well. First, if we look at the cropping rate, which is the percentage of productive rice paddy, we can see that it was already at a high level of 65 percent at the beginning of the colonial period, rising slightly during the Great Depression and then remaining at a level of 68 percent after the mid-1930s.



The cropping rate of other crops was lower than rice, hovering around 43 percent before spiking to 50 percent in the late 1920s, after which growth in the cropping rate stagnated. In addition, the percentage of rural households that comprised tenant farmers rose from around 40 percent in the 1920s to over half the rural population during the Great Depression, maintaining levels of 52 to 53 percent afterward.

This was the proportion of pure tenant farmers only. The percentage of rural households occupied by part-time or semi-tenant farmers was also relatively high. Farmers that tilled their own land accounted for less than 20 percent of all rural households. Overall, the landlord-tenant relationship in agriculture, already dominant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intensified from the late 1920s through the Depression. The unfavorable price of rice during the period increased the number of tenant farmers, but this trend dissipated after the mid-1930s.

Using the sharecropping rate and the tenancy fee (or rent harvest), which is the percentage of production that tenant farmers pay to landlords, we can get a rough estimate of how the rice produced was distributed among the different stakeholders. For example, if we assume that land productivity does not differ between landowners and tenants, and that the tenancy rate is 55 percent, we can find that in the early 1930s, landowners, who represented 3.6 percent of all farmers, received 37 percent of the total output, while tenant farmers, who represented 53 percent of all farmers, received less than 20 percent.

Furthermore, if we look at commodified rice, which excludes rice produced for domestic or household consumption, the concentration of this product in the hands of landowners is even greater. While landowners were able to sell most of the rice produced on their lands, the share going to the tenant farmers was not even close to the average consumption level. The results show that 60 percent of the commodity rice was sold by landowners. Therefore, we can say that the majority of rice exported to Japan came from landowners.





However, grain merchants and rice miller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movement of rice in Joseon. In Joseon, farmers and landowners sold rice in its raw state to rice merchants or directly to rice mills, who processed it into brown or white rice grains before shipping it to Japan.

When I said that the price of the rice produced in Joseon became similar to the price of Japanese rice, I was referring to the price of rice in the central commodity market in Joseon; there was a large gap between the prices in this market and the price that an individual farmer would receive when selling to a local grain merchant. Not only were farmers' rice sales concentrated during the bulk shipping season, but there was also a major asymmetry between farmers — which were dispersed and unorganized — and grain merchants in terms of financial power and knowledge, which likely suppressed the price farmers received for their rice.

An example from a 1930 agricultural survey shows that the price difference was as high as 35 percent. That is a big gap, even when factoring in shipping costs and other expenses. In other words, we can see that in Joseon, grain merchants and rice millers made a lot of money exporting rice.

And since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would have made a lot of money from the production and transportation of rice, we need to know how they used this newly-earned income. One possibility is that they used the profits to purchase more land. However, as we saw in Figure 8-3, the share of cropped rice paddies grew only marginally higher, reaching the high 60-percent range, so it is unlikely that these profits were spent on new rice paddies.



Another possibility is that they invested money in other industries, but we lack the data to verify this directly. So instead, we follow the approach of Kim Nak Nyeon (2003), yours truly, by matching shareholder lists with lists of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to identify shares owned by those whose names match and assuming that their funding came from agricultural profits.

There could have been cases of the reverse, in which a shareholder bought land with their earnings and became a landowner, but I think such cases are a negligible share of the whole. For the shareholder list, we used the names of majority shareholders and the number of shares extracted from a registry of Joseon-based banks. In addition, we added information from a separate report for larger companies. We limited the targets of this study to companies with paid-in capital of JPY 50,000 or more.

Although only a small number of shareholders were ultimately identified, they were majority shareholders representing very large investments, and are a suitable sample through which we can analyze stock investment at the time. Lists of large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were compiled by province or region. We looked at landowners who owned lands of 30, 50, 100, or more jungbo, a traditional measurement of area. Some regions were not included due to lack of data. Therefore, the terms "shareholder," "landowner," and "grain merchant," used here are limited to those with relatively large holdings of stock or land.



Table 8-3, which summarizes the survey results on firms owned by the people of Joseon, shows the proportion of firms whose owners were also landowners or grain merchants is marked in green. Such firms constituted 32, 33, and 37 percent of all firms in 1925, 1935, and 1939, respectively, representing about one-third of all firms. In the meantime, the equity stakes of Korean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is shown in pink. We can see that these stakes grew from 29 percent in 1925 to 43 percent in 1935, and reached 47 percent in 1939. In other words, these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contributions to firm capitalization in the 1930s approached 50 percent, and moreover, this figure was trending upward.

A sectoral ownership comparison shows a relatively higher percentage of agricultural companies had landowners as stakeholders. About a third of owners and equity holders of financial and commercial companies were landowners or grain merchants. Among electricity and mining and manufacturing firms, the percentage of stakeholders that were grain merchants, marked in light blue, ranged from 32 to 39 percent, and their equity stakes ranged from 27 to 47 percent.

Table 8-4 shows that Japanese-owned firms were both much greater in number and more capitalized than Joseon-owned firms. The proportion of representatives of Japanese firms who were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was somewhat lower than that of companies in Joseon, at about a quarter (highlighted in green) and their equity stakes ranged from 23 to 24 percent (highlighted in pink). However, this number is underestimated given that the records do not clarify whether corporate shareholders were landowners or grain traders living in Japan.

Landowners and grain merchants were also more likely to be representatives or executives in companies, meaning that they often participated in the formation and management of the company rather than simply being shareholders. Since the data used was limited to groups with certain levels of wealth, be they shareholders or landowners, I believe the percentage would have been significantly higher if the sample had been larger.



However, if we look at their investment portfolios, many of these individuals were heavily invested in agriculture or rice exports. In terms of non-agricultural investment, many had investments in finance or commercial businesses in 1925, but by the end of the 1930s, their investments had expanded to include the mining and manufacturing industries. So far, we have looked at cases of individual shareholders. Here we should examine corporate shareholders.

At the time, industrialization was driven by electric utilities, as well as the manufacturing and mining industries, and a large proportion of capital in these sectors came from Japanese corporations. As we will see later, capital and technology from Japan played a central role in the industrialization of Joseon. However, as noted above, the capital inflows from Japan were induced by the market demand for manufactured goods in Joseon created by rice exports.

It can be said that the rice production improvement plan and the export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after the 1920s resulted in a vast trade surplus in rice and the concentration of agricultural profits in the hands of landowners, which formed the basis for the imminent acceleration of industrialization along two paths: the increased purchasing power which allowed for the development of the domestic manufactured goods market, and the investment of agricultural profits in non-agricultural activities and industries.





### 8-3

### Colonial industrialization

Here we look at the policies and practices of colonial industrialization, which gained momentum after the 1930s.

The conventional understanding of the colonial industrialization of Joseon is that it was a product of a military industrialization policy driven by the Japanese invasion of the continent. This argument holds that the Manchurian Incident in 1931 and the Sino-Japanese War in 1937 spurred military-oriented industrialization to turn Joseon into a continental military base.

This perspective emphasizes that the demand or impetus for industrialization came from outside of Joseon, thus making industrialization a two-tiered affair with no organic connection to local conditions. Although this view has lost favor in recent years, Korean textbooks still reinforce this perception.

The recent literature, and especially English-language scholarship, has focused on the emergence of the Korean economy, with an emphasis on its continuity with colonial industrialization. It has been argued that state-led growth, which was the salient characteristic of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had its roots in the colonial period. This school of thought sees Korea's high-growth development based on a foundation first laid during colonization.

From this perspective, colonial industrialization is portrayed as a product of industrial policy by the Government-General. These two perspectives symbolize the wide gap between historical assessments of colonial industrialization. However, they also have something in common in that they all acknowledge the role that the government played in industrialization. If we had to name the two theories, we might call them the military industrialization theory and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However, these theories of state-led industrialization do not perfectly match the makeup of industrialization policies at the time. After 1920, Joseon's industrial policy, as is widely known, was centered around a plan to increase rice production, so naturally, policies for industrialization were modest and insignificant.

The Great Depression of 1929 pushed Joseon's agriculture-first policy to its limits, as rice prices plummeted and frictions with Japanese agriculture intensified. This shifted attention from rice to the industrialization of Joseon, but an industrialization policy did not take shape immediately. The Government-General was unable to pursue industrialization policies similar to those the Korean government implemented after liberation. This was due to the constraints of the Japanese regional integration network to which Joseon belonged.

The Government-General also lacked a financial instrument it could wield to push for industrialization. Due to the constraints on Joseon's monetary system described in the previous lecture, raising funds by issuing government bonds underwritten by the central bank was impossible, as was done in Japan during the Manchurian War.

In addition to financing, modern technology and management capabilities were essential for promoting industry, which the Government-General could not secure on its own. Thus it had no choice but to attract private capital from Japan.

In fact, industrialization policy during this period focused on creating a favorable environment for capital entry through administrative measures and by encouraging prominent Japanese capitalists to invest in Joseon. In addition to marketing the prevailing low wages in Joseon, the government also tried to attract Japanese capital by claiming that Joseon was a regulatory haven for capital, and it did not enforce Japanese laws that capitalists wanted to avoid, such as the Factory Act and the Critical Industries Control Act.



This was called the "Ugaki Liberal Policy" at the time, and I think it is a good representation of the industrialization policy in the first half of the 1930s. With regard to industrialization, it is noteworthy that the Governor-General discovered the potential for large-scale hydroelectric development through surveys taken in the 1920s. But this development was not driven by the Governor-General's office, but rather by attracting private Japanese capital.

A research council was formed to promote industrial development, campaigning for agricultural and industrial progress" in 1936. More concrete plans for industrialization were made by another council formed to draft industrialization measures in 1938 in the wake of the Sino-Japanese War. This new response committee called for intensive industrialization in Joseon, especially in the munitions industry, and specified production targets to reach by 1941.

However, the industries the council selected for promotion here were not strictly military industries, but also materials sectors that produced intermediates, called "production capacity expansion industries," to use the expression of the time. After the Sino-Japanese War, legislation was enacted to mobilize and control material, money, and labor, and to allocate these resources according to policy priorities.

It is worth noting that the characteristics of industrialization policy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before and after the Sino-Japanese War. In wartime, industrialization was promoted by selecting specific industries under the Production Capacity Procurement Plan and mobilizing various control measures to support them.

In other words, market mechanisms were not completely excluded, but the economy was nonetheless heavily driven by policies, a trend that intensified toward the end of the war. By comparison, the period prior to the Sino-Japanese War saw little in the way of military industrialization, let alone interventionist measures that could be considered state-led. In that sense, the Sino-Japanese War marked a major shift in economic policies.



The previous research operating from the military industrialization perspective seems to have extended the military industrialization or state-driven elements that began in earnest after the war to include the prewar period. However,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by comparison has deeper roots in the intellectual tradition of historical scholarship, primarily in the English language literature. Scholars in this tradition have a strong tendency to see both the Government-General an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s types of strong states, and as fundamentally disconnected from the Joseon state.

To elaborate a bit further, while the Joseon state was not democratic, neither was it a totally despotic, absolutist monarchy. That's because a social class of aristocrats called the yangban served as a check on the Joseon kings' authority. While these checks and balances may explain why the Joseon Dynasty survived for so long, it is also recognized that it was an inefficient system for dealing with the rapidly changing circumstances before and after the opening of the country's ports by foreign powers.

Japanese colonization is seen as replacing this traditional government with a centralized authoritarian government. Thus, the authoritarian government of Park Chung-hee's time is also seen as having its roots in colonial government rather, than in Joseon's social tradition. And these strong states were repressive on the one hand but development-oriented on the other. So we can find some common ground in that both periods transformed society toward specific goals.

The point I want to make here is that, when we talk about a "strong," nation, three things are implied. To wit: a strong nation can coerce, has relative autonomy and is insulated from the political influence of particular groups or classes, and is interventionist. The developmental state theory sees the colonial government and the Park Chung-hee government as "strong" states, with all three characteristics.





However, it would be more accurate to say that while the colonial government could coerce and was insulated from external political forces, only during wartime was it especially interventionist. The mistake of trying to extend the interventionist image of the at-war colonial government to earlier periods is primarily due to the desire to project the strong state theory used to explain the high growth of Park Chung-hee's government in the 1960s and 1970s onto the colonies.

But if the persuasiveness of state-led explanations for industrialization is limited to wartime, then we need to look for other explanatory factors for the previous industrialization. First, we can take a look at quantitative indicators of industrialization during the colonial period.

Figure 8-4 shows trends in the number of factories, the number of employees, and firms' paid-in capital. What is defined as a "factory" varies slightly from period to period, but generally refers to a business that employs five or more workers, and enterprises with fewer are classified as family businesses.

The total number of factories increased from 151 to 5,342 from 1910 to 1928, and from 4,010 to 7,142 from 1928 to 1940. There are two figures for the number of factories in 1928 because the definition of "factory" was revised after that year.

The growth rate in the number of factories was higher in the early years, with average annual growth rates of 30, 12.5, and 4.9 percent for the periods between 1910 and 1920, 1920 and 1928, and 1928 to 1940, respectively. To compare this to the post-liberation figures, the average annual growth in the number of manufacturing businesses from 1955 to 1970 was 6.9 percent, and 5.4 percent from 1970 to 1990. This is partly due to the low number of factories in the early days of the colonial period, but nonetheless, we can see that the growth rate was higher before liberation.



If we break ownership down by ethnic group, we see that in the 1910s, Joseon-owned factories accounted for 25.8 percent of all colonial factories. Still, their share rapidly increased, reaching 60.2 percent in 1940. Yet this is somewhat misleading, as while there were many Joseon-owned factories, these were mostly small operations. Most of the large, modern factories were Japanese.

However, contrary to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the entry of Japanese capital caused the stagnation or decline of equity held by native Koreans, I think it is noteworthy that the number of factories in Joseon increased very quickly, and that the proportion of Joseon-owned firms grew by a significant degree. Larger factories eventually emerged in Joseon, and while initially concentrated in a handful of industries, such as rice mills and breweries, large factories in various industries did come to be built.

The number of factory workers is charted in a yellow line on the right-hand Y-axis on a logarithmic scale. We can see that the number of factory workers grew from 15,000 to about 300,000 during this time. Average annual growth rates in the 1910s, 1920s, and 1930s were 16, 6.3, and 11.2 percent, respectively, compared to growth rates in the post-liberation periods of 1955 to 1970 and 1970 to 1990 of 10.1 and 6.5 percent, respectively.

Meanwhile, firms' paid-in capital also grew rapidly during this period, with the blue line representing the log value in millions of yen. Paid-in capital was divided by a GDP deflator to give 1935 constant prices. We can see that the average annual increase was 12.9 percent.



The growth rate we can see in the data on factories alone suggests that industrialization was proceeding rapidly during this period.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the overall level of industrialization in the country remained low. The number of factory employees had grown to 300,000 by 1940, but these workers only represented 3.3 percent of the working population.

More people were working in cottage industries, or small businesses ran out of homes. Production in cottage industries constituted over half of all industrial output in the early 1920s, but by the end of the 1930s, amid the rapid industrialization of Joseon, production from family businesses had fallen to account for just 20 percent of industrial production. Although the production share of these cottage industries fell rapidly, absolute output continued to grow until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Some of these cottage industries even grew into factories in order to produce better products. But generally, goods produced at home were intended to be consumed at home. This is in contrast with Taiwan's case, where despite the progress of industrialization, no self-sufficient cottage industries ever developed. Unlike Taiwan, Joseon had a long agricultural off-season due to the seasonal weather, so it made sense for farmers to have side businesses, even if they were less efficient.

As a result, industrial production during this period ranged from modern factories built by large amounts of Japanese capital, to small and medium-sized factories, to self-sufficient cottage industries at the lower end of the spectrum.



Goods in production and trade statistics can be broken down into intermediates and final goods, excluding services, and final goods can be further categorized into production and consumption goods. In this context, intermediate goods are durable goods that enter the production process and are used once, whereas production goods are used for a period of time. For each product category, consumption in Joseon can be calculated by subtracting exports from production and adding imports. Here, intermediate goods indicate the degree of division of labor between industries. Among final goods, the consumption of consumer goods and production goods shows the level of consumption and investment in Joseon.

In Figure 8-5, the product mix refers to each product's share of total production, and the consumption mix refers to each product's share of total consumption. In the graph, the production component is labeled P and the consumption component is labeled C. The costs are presented as components rather than values to account for the impact of inflation in comparing trends over time.

First, Panel A of Figure 8-5 breaks down all products into consumption, production, and intermediate goods, and then shows the changes in each product's share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The production components are represented by dashed lines and the consumption components by solid lines. For example, the blue dashed line shows that the share of consumer goods in total production fell sharply from 1918 to 1940, from 85 to 58 percent. Likewise, the solid blue line shows that the share of consumer goods in total consumption fell similarly over the same period.

The large drop in the composition of consumer goods is due to the large increase in the composition of intermediate and production goods, as the graph shows. The rapid rise in the composition of intermediate goods indicates a shift toward an increasingly intertwined inter-industry division of labor within and between Joseon and Japan.





And manufactured goods, though small in percentage, grew in number quickly. In particular,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hares of manufactured goods rose from just one and four percent in 1918 to four and 11 percent, respectively, in 1940. This shows that investment in Joseon had grown to rely heavily on the importation of production goods from Japan.

Panel B of Figure 8-5 shows the composition of production and consumption for agricultural consumer goods and manufactured consumer goods, respectively. In contrast to the sharp decline in the composition of agricultural consumer goods, the composition of industrial consumer goods and production goods increased rapidly.

For agricultural consumer goods, the production component, indicated by the green dashed line, i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consumption component, shown by the solid line, due to the outflows of rice we discussed earlier. In contrast, the production composition of consumption and production goods, shown by the purple and light red dashed lines respectively, shows a steady rise from 1918 to 1940.

Since goods production increased steadily during this period, the increase in the composition ratio implies that the absolute level of industrial production increased much faster. In other word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rapidly. Here, the statistics suggest that industrialization has progressed since 1918 — not just since the 1930s.

And the fact that the composition of consumption goods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production goods suggests that through trade, Joseon was consuming far more manufactured goods than it produced domestically. This shows that the market for manufactured goods in Joseon had expanded earlier due to the capital inflows from rice exports, as mentioned above, and that industrial production in Joseon increased as an inducement.



In the meantime, we should also note that the share of consumption goods of total consumption increased from 15 to 26 percent from 1918 to 1935, but then fell from 26 to 22 percent from 1935 to 1940. This is in contrast to the steadily increasing share of production goods of total consumption during the same period.

While it is not shown in the graphs, we can look at the breakdown of industrial consumer goods and find that the share of consumer goods such as textiles and food decreased. This suggests that in the period around the Sino-Japanese War, the consumption of mass consumer goods in Joseon may have turned to a declining trend.

Here I will outline a few examples of how Joseon first relied on imports, gradually substituting them with products produced domestically as industrialization progressed. Figure 8-6 shows the evolution of Joseon's production, imports and exports, and domestic consumption of cotton fabric, a major consumer product of the era. Prices are in constant 1935 yen.

First, cotton cloth consumption peaked at 30 million JPY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onial period to 67 million JPY by 1934, after which it began to decline. Consumer demand in Joseon was largely met by imports, but by the 1930s, domestic production was growing rapidly and started to replace imports. The dependence on imports for cotton textiles, obtained by dividing the value of imports by the sum of production and imports, slowly fell from over 80 percent in the early years of the colonial period to five percent in 1940, as domestic cotton production soared in the 1930s. After the Sino-Japanese War, production in Joseon began to decline due to a limited supply of raw cotton, but imports had already plummeted prior to that. Even before the Sino-Japanese War, we can see that imports of cotton textiles were being replaced by production in Joseon, although at different rates at different times.



Figure 8-6 shows the case of rubber shoes. Consumption of rubber shoes was negligible in the 1910s, but skyrocketed in the 1920s, with a market value of 65 million JPY in 1937. After the March First Independence Movement, rubber shoes became very popular. These were initially imported mainly from Japan, but domestic production quickly increased to meet demand. We can see this in the steady decline in import dependency.

The decline in production after the Sino-Japanese War was due to the constraints on the supply of raw materials during wartime, as was the case with cotton as mentioned above. In the case of cotton textiles, although local conglomerates (including a Joseon firm called Kyungbang) operated spinning and fabric production businesses and contributed to domestic production, Japanese spinning companies led the import substitution process. In contrast, rubber shoe production started at small factories and Japanese businesses had the largest market share, but the industry gradually became dominated by the people of Joseon.

In the case of chemical fertilizers, domestic products rapidly began to substitute for imports when Nippon Nitrogen started local production in Joseon. In Joseon, demand for chemical fertilizers increased with the success of the Rice Production Development Plan, and the country initially relied on imports from Japan.

Nippon Nitrogen built the Jangjin River, Bujeon River, and Hecheon River hydroelectric power plants in the province of Hamgyeong (in present-day North Korea). These plants were at a scale unparalleled even in Japan. The Japanese firm also built the Joseon Nitrogen Plant, a state-of-the-art chemical fertilizer plant using electricity, that began operations in 1930. Fertilizer production soared. At the same time, fertilizer consumption in Joseon increased significantly, reaching 200 million JPY in 1940.



On the other hand, there were some products for which import substitution was slow to occur, such as machinery. Consumption of machinery grew rapidly in Joseon, from six million JPY in the early colonial period to over 200 million JPY in 1940, while import dependence remained largely unchanged, at around 80 percent.

This was because even though capital investment increased significantly, it was difficult to source the technology in Joseon. This actually led to the problem of a countervailing trade in machinery that lasted until some time after liberation.

In conclusion, the expansion of the market for manufactured goods triggered industrialization in Joseon, albeit to varying degrees depending on the product. In the case of the cotton textile and chemical fertilizer industries, when the market demand in Joseon reached a certain size, Japanese capitalists made direct investments targeting this market.

The rubber industry was a case where a new product was imported, a market was developed, and then a number of small factories emerged in Joseon based on this market. As seen in other developing countries, exporting primary goods and relying on imported manufactured goods is common, which can lead to a structural fixation that is hard to change.

Moving away from such a framework requires the creative participation of private entrepreneurs by recognizing and capitalizing on opportunities presented by market expansion. Earlier, we pointed out that the number of factories in Joseon grew rapidly, and their business portfolios diversified. This may suggest that Japanese entrepreneurs led the way in sectors that required large amounts of capital and advanced technologies, while entrepreneurs in Joseon were taking advantage of opportunities in other sectors.





We can observe such trends in individual cases across industries as well. If we plot the import dependence of manufactured goods as a whole in Figure 8-2 from earlier, we can observe a gradual U-shape, rising from 39 percent in 1918 to 49 percent in 1930 before falling back to 35 percent in 1940.

We can also note differences by industry. For example, the machinery and metals industries depended highly on imports, while the food was less. It can be seen that the import dependence of the chemical industry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the local production of fertilizer. The difference in the textile industry's dependence on cotton imports is due to the increase in the share of imported fabrics such as wool and faux wool.



## 8-4 The wartime regime

However, industrialization took a turn for the worse when wartime controls were put in place. We will examine how this came to pass.

After the Sino-Japanese War, Japan instituted wartime economic controls. Here, we will look at the main wartime control laws, which were implemented in Japan, Joseon, and Taiwan at the same time. First, there was the Temporary Measures Act (1937) that restricted or prohibited specific exports or imports. Its scope was expanded to include not only imported and exported goods themselves, but also products made from them. The government gained control over materials production as well through this regulation.

At the same time, the Temporary Funds Adjustment Act (1937) was implemented to control capital flows. According to the Act, various projects were divided into three "grades:" first, second, and third, and capital was allocated according to policy priorities.

Furthermore,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of 1938 gave the government broad powers of control, with specific rules set out in separate edicts. If the previous two laws governed goods and money, labor control was implemented under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The government also instituted various price controls. For example, the Price Control Order froze all prices on September 18, 1939, as prices rose with the outbreak of World War II. This was not limited to commodities: the law also regulated fares, wages, rents, the distribution of corporate profits, and sharecroppers' rents. This meant that not only commodity prices were controlled, but also the prices of the factors of production.



However, as the supply and demand conditions of various goods and raw materials are bound to change, rigid prices that could not respond to production conditions led to various inefficiencies, and production fell. To adjust for this, the government had no choice but to specify new selling prices for each item from time to time. The overwhelming bulk of the new regulations announced by the Government-General during this period concerned sales prices. For critical items, the government was trying to replace the market's pricing mechanism.

However, this approach led to uncoordinated surpluses and shortages of goods, stifling production and allowing black markets to run rampant. Controls intensified to crack down on black markets, and so-called "economic police" were mobilized.

Furthermore, the National Mobilization Law contained several measures that restricted the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nd the freedom to enter into contracts and operate businesses, which are fundamental to a market economy. Factories, businesses, ships, and other facilities could be managed, used, and accommodated as needed the pursue the war. If necessary, the law could restrict the establishment, expansion, and renovation of facilities, and could order the transfer, consignment, abolition, or suspension of facilities of existing businesses, and the merger or dissolution of legal entities.

In other words, the executive branch could freely mobilize materials, funds, and labor for war purposes. As a result, civil and commercial laws, which were based on the principle of private autonomy, were extensively constrained by these wartime control laws.



In conclusion, the wartime control system transformed the economy into something qualitatively different from a conventional market economy. Free market principles were not abandoned altogether, but were to a great degree replaced by planning and control mechanisms. The institutional arrangements that underpinned the market system, such as civil and commercial laws that guaranteed freedom of ownership, the freedom to enter into contracts, and the freedom to do business were eroded by extensive government intervention.

There are limited historical records of industrialization during wartime. The Government-General's Statistical Yearbook was not officially published after 1941. Price statistics alone do not reflect the economic reality of this period due to price controls and high levels of trading on black markets.

Table 8-3 shows the evolution of the production index. Production in 1936 is set at 100 for identifiable product categories. First, industries that were targeted for capacity expansion plans, such as minerals, iron, and electric power, rapidly increased production by the end of the war. There seems to be a lot of variation between categories depending on conditions, with categories that were targeted for policy support having several times the production in 1944 compared to 1936.

In contrast, for mass consumer goods, there appears to have been a general decline from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to the end of the 1930s. Crop production too fell, with the sole exception of potatoes, since the Sino-Japanese War.

For textiles, cotton production peaked in 1938 and then began to decline, although the production of wool and silk had been increasing since then. Even for alcoholic beverages, production generally appears to have peaked in the late 1930s.





In other words, we can see that there i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production trends during wartime between the industries targeted by capacity expansion plans and other mass consumer goods industries, including agriculture. Behind the scenes, of course, were wartime economic controls that funneled money and resources to strategic industries targeted for capacity expansion and restricted other sectors.

This divergence in production trends began after the Sino-Japanese War, but industrial production as a whole increased until 1940, as shown in the GDP statistics by industry. However, since then, it is believed that the divergent production trends between sectors with concentrated policy support and those without may have become more pronounced, and that total production may have shrunk.

Meanwhile, as shown in Figure 8-7, trade also began to decline in the late 1930s, with an expedited decline starting in 1943. However, in the early 1940s, exports declined more rapidly than imports. But by 1944 there was eventually a net outflow of goods. Given the large share of imports in the consumption of manufactured goods, this would have been a major supply constraint in a wartime economy.

It is worth noting that industrialization had quite different meanings before the Sino-Japanese War and during wartime. Whereas before the Sino-Japanese War, industrialization was centered on manufactured consumer goods and was closely linked to the export industrialization of agriculture in terms of markets and capital, wartime industrialization was controlled by the government and resources were concentrated in industries subject to capacity expansion initiatives.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of mass consumer goods were suppressed or sacrificed altogether.

While we can talk about industrialization in the sense that the relative importance of industry increased in both periods, the mechanisms by which it unfolded were quite different.



Earlier, we pointed out that not only was there a surge in the flow of money from Japan to Joseon during the Pacific War, but there was also a surge in the flow of money out of Joseon. As you can see in Table 8-1, the outflows during this period consisted of purchases of securities, including Japanese government bonds. Let us consider what this means.

During this period, financial institutions in Joseon were able to significantly increase their purchases of Japanese securities due to a surge in deposits, which in turn led to an increase in nominal income in Joseon as the wartime inflows were spent. But the supply of mass consumer goods during wartime was severely constricted. Left unchecked, this situation was bound to lead to rapid inflation, so monetary controls to encourage or force savings became inevitable.

Savings could be forced through deductions from paychecks, for example, to limit spending in advance. According to the data from 1943, when a farmer delivered the public production quota of rice, 20 percent of the sale price — rising to 60 percent if production subsidies were received — would be deducted and deposited into the farmer's account at the financial cooperative.

In 1944, this mandatory sales tax deduction was increased to 30 percent. In this way, deposits at financial cooperatives increased significantly, and they were used to buy bonds issued by the Food and Agriculture Bank or to purchase Japanese securities.

As we saw in the last lesson in Week 7, the Bank of Chosen used Japanese banknotes as a reserve currency. This was a device to prevent the Bank of Chosen from hoarding currency and to maintain an equivalent exchange between the two local currencies. However, in wartime, when there was a surge in capital inflows from Japan, the issuance of Bank of Chosen banknotes also increased, as there was no practical way to prevent this.



Japan's capital exports were usually accompanied by an inflow of goods, as the incoming funds could be used to import goods from Japan. This typically took the form of financing trade deficits with inflows. In contrast, the wartime savings mandate meant that Japan's purchases of securities simply increased its holdings; this was not accompanied by increased flows of goods to Joseon.

This was done in wartime to prevent inflation from spreading to Japan, given the country's diminishing ability to supply goods. Toward the end of the war, however, it became increasingly difficult to take the Bank of Chosen notes out of circulation due to the capital controls in effect. The resulting inflationary pressures were contained by price controls, but when liberation eliminated these controls, the country was plunged into a hyperinflationary state. Thus, Japan's capital exports at the end of the war stoked inflation.

With that, let us now wrap up this week's lesson. The distinguishing characteristic of this period is, of course, that it was a colonial system. Moreover, the period had two different regimes: one before, and one after the outbreak of the Sino-Japanese War. First, before the war, the Japanese Empire was effectively a regional integration system with a single market and currency. The colonial government did not pursue an interventionist industrial policy based on the institutional changes we discussed in the last lecture.

During this period, agricultural development centered on rice transfers, which I believe was a carryover from the port-opening era. And despite the fact that there was no specific industrialization policy in force, industrialization centered on manufactured consumer goods progressed, closely linked to the export industrialization of rice.



And as we saw in the long-term thematic trends we explored in Part 1, compared to other periods, colonial Joseon was still an overwhelmingly agrarian society, with high fertility and low savings rates, resulting in weak human and physical capital formation, and therefore low productivity.

Economic growth was about half that of the post-liberation period, and levels of inequality were higher than in any other period, as the colonizers had an overwhelming advantage in modern technology and capital, and Joseon was home to an ingrained system of landlordism and tenant farming. In that sense, I think it serves as an example of what kind of economic changes occur when a comparatively underdeveloped society is incorporated into a relatively more developed one through a regional integration mechanism.

In contrast to this, the war saw Japan and its colonies transition to a system in which the market played a less important role. That is, war was a time in which the principles of planning and control ruled, rather than the market. During the war, industrialization was carried out by concentrating resources in specific sectors designated by policy, an extreme case of the use of industrial policy for industrialization.

Due to the special circumstances of wartime, resources were concentrated in a handful of areas at the expense of all others, which is not sustainable. It was in this way distinct from the market-driven industrialization that preceded it. This period was short-lived, but its impact on the post-liberation period was significant. North Korea inherited this command-and-control system, as we will see later. I also think that the wartime system influenced the industrial policy of South Korea, too.

In this week's lecture, we explored colonial economic development. This has been the eighth lesson in the History of Korean Economic Growth. In our next lesson, we will study liberation, division, war, and the aid economy. Thank you.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讲义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第8周

## 殖民时地期的经济开发

8-1

### 日本の資本輸出

各位同学，大家好。我是担任《韩国经济发展史》主讲的金洛年。很高兴通过这门讲座与大家见面。这节课是我们的第八节课，将一起来学习一下，在殖民地时期，韩国在加入了日本帝国的区域整合体系后，经济发生了怎样的变化。

殖民地经济发生的变化，日本的资本输出是其中一个重要的因素。首先，我们来看一下资金流入或流出的规模。20世纪20年代，与产米增殖计划相关的政策资金大量流入，促进了大米出口的产业化发展。这不仅仅是对于朝鲜的农业，还有工业化的发展，都造成了很大的影响。

20世纪30年代之后，流入的民间资本和政策资金规模都有大幅的提升，进一步地推动了工业化的发展。但是，在中日战争之后，从20世纪40年代开始，政府不断加强管制，从以前的市场经济体制向统制经济体制转型。管制经济体系，尽管实施的周期比较短，但是对于解放后的朝鲜和韩国产生了很大的影响。通过今天这节课，我们来看看殖民地时期经济变化的实际情况和其背后的意义。

除了殖民地和半殖民地的满洲之外的话，日本是资本的净输入国。唯一例外的是在第一次世界大战期间形成的对欧洲的资本出口。在第一次世界大战中，欧洲国家的参战，使得世界市场处于空白期，而日本抓住了这个机会，实现了贸易顺差。但是在战争结束之后，贸易又重新回归逆差的状态，再次面临外汇不足的问题。

即使在这种情况下，日本也在不断地扩大对殖民地的资本输出。作为后发展国家的日本，相较于其他国家，反而更积极地对殖民地进行资本输出。这这里我们将研究一下日本通过怎样的途径进行资本输出，达到了怎样的规模，然后这样的资本输出的特征，又是怎样随着时代的变化而变化的。



在表8-1中，我们可以看到日本资金流入的途径，以及流入或流出的规模等相关的信息。 在表中展示了各时期的年平均値。 例如，在1910年~1920年这11年间，国库资金为2600万日元，这一期间流入朝鲜的国库资金flow的总值除以11年，计算得出的年平均値。 之所以选择这一周期，是因为可用的资料有限。 大致可以分为20世纪10年代和20世纪20年代，还有20世纪30年代以后重新进入满洲事变时期1932年~1937年，中日战争期1938年~1941年，太平洋战争时期等几个时期。 大致可以对应1931年的满洲事变（九一八事变），1937年的中日战争，1941年的太平洋战争等重大事件发生的时间。

对于表中的流入和流出的资金的各项目，有必要进行说明。 国库资金下的行政费用是指日本政府向朝鲜总政府提供的财政补贴。 军事费用是指驻朝鲜的日本军经费，这部分费用不用总督府承担，而是直接由日本财政直接支出的费用。

在中日战争之后，朝鲜也开始承担部分的军事费用，而这里减去了这部分费用，是指净流入额。 总督府在日本发行了事业公债，这部分的收入金额，大部分被用于铁路建设和改良。 表格中的国债是指在日本发行的国债收入中减去还本付息部分的净流入额。

所谓存款部资金是指，如果在朝鲜的邮局存款的话，会进入日本大藏省（相当于财务部）的存款部管辖之下，相当于资金流出。 并且，大藏省把存款部的资金用于朝鲜的地方自治团体融资，或者债券包销之中，这部分资金流入了朝鲜。 表中的存款部资金是指，在流入金额的基础上减去流出金额的净流入额。 20世纪20年代，流入额开始增长，越到后期，越开始趋于负数，由此可知，出口规模确实在不断扩大。

所谓特殊金融机构是指，在日本为了筹集资金，发行债券的殖产银行，东洋拓殖株式会社，金融合作社等机构，同样这里也是净流入额。 所谓公司资金，是指以民间公司为中心进行的股本出资或贷款，或通过发行公司债券获得的资金的净流入额。 所谓日本有价证券买入，是指朝鲜的金融机构，买入包括日本发行的国债在内的有价证券，这部分资金的流出。

在表8-1中，我们可以看到日本资本输出的途径和各时期的特征。 首先，20世纪10年代，为了奠定殖民统治的基础，国库资金的流入金额相对较高。 在公司资金方面，也是为了设立朝鲜银行或殖产银行这种特殊的金融机构，出资的资本金占了较大的比重。





20세기90년대, 经过特殊金融机构流入的资金开始急剧上升。 推行朝鲜的大米增产计划的资金, 也主要来源于殖产银行和东洋拓殖株式会社, 而且这一资金主要通过在日本发行债券的形式进行筹集。 并且, 这些债券有相当一部分是由日本大藏省的存款部进行接收管理的。 这意味着, 日本政府积极地支持以农业发展为目的进行的资金筹集。

相较于这种政策资金的动向, 这一时期民间公司资金的流入相对而言处于停滞的状态。 而民主事变时期 1932年~1937年这一时期, 与前一时期相反, 政策资金的流入开始停滞, 民间公司的直接投资开始大幅提升。 经由特殊金融机构流入的资金增长停滞, 主要是因为大米增产计划带来了过度生产的问题, 而日本农民对此严正抗议, 使这一资金的增长触到了天花板。 对于总督府发行的国债, 也限制了新的债券发行, 而且还本付息的情况不断增加, 净流入额处于较低的水平。

与此相反, 主要依靠民间资本直接投资的矿工业和电气业出现大幅上升的情况。 20世纪30年代, 韩国工业化的推动, 对这一情况产生了较大的影响。

1938年~1941年, 中日战争期间, 通过各种途径流入的资金都大幅上升。 在国库资金中, 以铁路建设和改良为目的的国债发行量大幅提升, 军事费用的流入也大幅上升。 由经过殖产银行等特殊金融机构流入的资金也出现了大幅的上升, 这一资金的性质从20世纪20年代的农业资金变为扶持矿工业的资金。 民间资本的直接投资也开始急剧上升。

1942年~1944年, 太平洋战争时期, 经过了上一段时期的发展之后, 以国债发行收入, 军事费用和民间公司资本为主的资金流入, 呈现出了急剧上升的趋势。 但是经由特殊金融机构流入的资金规模反而有所缩小。 这不仅仅是因为殖产银行等债券发行机构的发行规模开始缩小, 还受到发行地区从日本变更为了朝鲜国内的影响。 即, 朝鲜国内的筹资规模有所提升。

而且不仅如此, 朝鲜的金融机构买入了日本的有价证券, 所以大规模的资金流出了日本。 资金的流入和流出几乎在同一时期急剧增加。 日本的资本输出急剧上升带来了名义收入的提升, 但政府想要通过资金控制的形势抑制民间消费的增加, 正如我们后面会提到的一样, 这意味着资本输出的意义开始变质了。





## 8-2

## 农业开发

接下来，我们将基于殖民地投资的发展历程，具体学习一下20世纪20年代的农业开发，20世纪30年代的工业化，太平洋战争期间出现的资本主义变质等因素对于朝鲜经济产生了怎样的影响。

在殖民地时期，朝鲜的农业比重之高，具有压倒性的优势，而且在农业中，大米处于支配性的地位。1920年~1934年，大米增产计划推行的必要性得到了朝鲜和日本两国的认可。朝鲜总督府将3.1运动作为计划推广的手段，不仅推动了大米的增产，还让朝鲜农民切身地感受到了有必要推进这一政策。日本在发展工业化和城市化的过程中，人口数量也快速上升，所以大米的需求无法只依赖于国内的生产，还依靠进口进行供应。

特别是在1918年，在日本因为大米不足而引起了暴动，“米骚动”这一骚乱事态，甚至引起了内阁的辞职，是一个非常严重的事件。但是，因为朝鲜每段步（面积单位，与“亩”相似）的大米产量只达到了日本一半的水平，所以还有很大的大米增产空间。并且，日元也是朝鲜的通用货币，所以在进口的时候不需要支付外币，这也是优点之一。

大米增产计划，为了提高农业生产力，开始推广农业改良计划和水利计划，以提升肥料和劳动力的投入，从而提升农业生产力。特别是在朝鲜的农业中，干旱和洪水的灾害频发，所以为了改善这一情况，加强水利设施的建设是一个关键手段。

但是，水利设施建设需要大量的资金，总督府通过殖产银行融资获得所需资金，进行水利设施的建设，尝到甜头的农民们加入了水利合作组织，通过他们缴纳的会费，来还本付息。加入水利合作组织的农业家庭，享受了相关的设施便利，但同时也承担了会费。

但是，根据农民所处位置，所享受的优惠条件不同，所以他们承担的会费金额应该有所差别，围绕着这一问题，农民之间经常会发生利益冲突。如果无法调解这一矛盾的话，那么这个组织就无法成立。



为了水利合作组织的成立和顺利运营，总督府不仅提供资金保障，还提供了制度保障。成立的水利合作组织数量在1935年达到了190个，我们以此为对象，来比较一下计划实施前后的大米产量变化情况。

在“朝鲜土地改良事业要览”中，我们可以看到1927年~1937年间的的数据，在计划实施前，计划的成果为每段步的平均稻谷产量达到了接近2石的水平。

当时耕地主向佃农出租耕地，收取一半的产量作为佃租，所以增加的产量有一半流入了耕地主的手中。因为会费是由耕地主承担的，如果比较一下这两个数据的话，就可以发现有40%~60%的增产收入被用来缴纳会费。

在这个过程中，即使考虑到其承担的肥料费用和农业经营管理费用都会有所提升，但耕地主从全局的角度来看，还是认可水利计划带来的经济效益提升。不同的组织之间，生产成果差异非常大，所以也有大米的增产效果不如预期，耕地主缴纳的会费反而会比收入高的情况。

我们先来看下图8-1中展示的殖民地时期的大米生产，贸易和消费动向等 内容。在大米生产量方面，1936年变更了生产量的调查方法，产量相较于过去提升了26%，需要考虑到统计上的断代问题。这个数据的处理方式在当时也成为了一个问题。在土地调查计划实施的时期1910年~1918年，为了对每片田进行法定地价的核定，实施了产量调查，所以基本反映了当时的实际情况。前面的误差为26%，对于1918年至1936年的年平均增长率，假设误差每年增长1%，是在这一假设条件下进行推算的。

我们来看一下图8-1中的“产量\_修正”，根据大米产量的丰歉波动而有所变化，由图可知，到20世纪30年代末为止，这一数据都呈增长的趋势。并且，每段步的大米产量在20世纪10年代上旬为0.83石，而到20世纪30年代下旬，则增加至1.36石，这也是大米增产计划的成果体现。但是，1939年，由于发生了大减产，而导致粮食大量减产，虽然在之后有一定程度的恢复，但是大米产量的上升也陷入了瓶颈期。



大米的流入和流出量，当时日本把出口量和进口量称为流入和流出量，除了下面这种有必要使用这一分类的情况，一般情况下，都不会用这一标准进行分类。从流入和流出量来看的话，这种增长趋势一直持续到20世纪30年代中叶为止。殖民地初期，流出量为5%的产量，而到20世纪30年代中叶，这一数值大幅上升了50%。

在20世纪30年代末之前，大米一直是朝鲜最重要的出口品类，农民们会直接受到大米出口情况的影响。与现在的出口结构形成了鲜明的对比，现在的出口商品主要为工业品，以制造业企业为主要对象。

在大米的产量中，减去流出量，加上流入量，就可以计算得出朝鲜国内的大米消费类。如图8-1所示，大米的消费量到中日战争时期为止，一直维持较为平稳的趋势。在战争时期，大米的生产和出口量开始大幅增长，这里有必要考虑大米的库存量。但在这个过程中，人口有所增加，所以虽然图表里没有人均大米消费量，但是如果我们计算一下这个数值的话，可以知道这个数值一直到20世纪30年代都呈减少的趋势。

这是因为直到朝鲜农民的大米消费量有所减少的时期为止，大米的流出量都有所上升。这也被称为大米的“饥饿出口”。在韩国史的教材中，我们可以看到这样的描述，因为日本“掠夺”了大米，所以造成朝鲜人的大米消费量下降，而推进大米增产计划，则使得朝鲜农民陷入更加贫困的境地之中。但是，当时是市场经济体制，大米交易应该是基于双方自愿的原则进行的，所以我们有必要从经济理论的角度，来分析人均大米消费量的下降原因。

朝鲜大米的出口规模要比增产规模更大，因此朝鲜人的人均大米消费量有所下降，大致有以下两个原因。其中一个原因是，这一时期地主制度十分发达，有一定规模的租粮集中在地主手中。相较于农民，地主手中的大米的商品率更高，这种大米的分配结构，也是推动米的商品化和日本出口的主要原因。我们后面会再具体地展开来看一下这个情况。

还有另一个影响因素是，朝鲜经济受到大米不足的日本经济影响，朝鲜米受到了日本米价格的影响，价格趋近于日本米，所以米价的上涨也间接抑制了大米的消费。虽然最近在收入呈增长的趋势下，大米的人均消费量也持续下降，但是在当时每顿都可以吃得上大米，就已经是一种财富的象征了。





当时，大部分的农民大部分餐食都是吃小米等杂粮，吃不上米饭。即使农民生产了大米，但是却无法吃得上大米，大米大量的出口，造成了大米价格的上涨。

如图6-3所示，在朝鲜米的价格未并入日本的价格体系之前的20世纪，仅为日本米价格的70%左右，20世纪20年代，接近90%左右的水平，而在20世纪30年代之后，一直在相似的水平上下浮动。朝鲜米在成为出口商品之后，在水稻的品种，或干燥及加工工艺等方面的商品性都有所提高，所以在品质方面也与日本米越来越接近，这也是两者价格差距进一步缩小的原因。

朝鲜的大米消费量虽然下降了，但并不意味着大米的出口带来了生活水平的下降。我们来打个比方。就像现在松茸这一个既珍贵又昂贵的食材，普通人几乎很难吃得起。向日本大量的出口是造成这一现象的原因之一。日本人对于松茸的喜爱之情非同一般，所以这个食物在日本的价格也非常高。

即使韩国生产松茸的农业家庭提升了产量，但如果出口量大于这部分提升的产量，那么就会造成韩国国内消费量的减少。即使存在这种情况，也不会引起韩国人的生活水平下降。因为售卖松茸的费用，可以带来消费或储蓄水平的提高，虽然松茸相较于大米而言，确实更珍贵和昂贵，但是这两个食品在理论上并没有任何的差异。

那么以大米为代表的农业出口产业的发展，对于朝鲜经济而言又具有怎样的意义呢？按照贸易商品的类型划分的朝鲜和日本的贸易收支，在1918年以后的5个年度的变化趋势如图8-2所示。黑色的数值代表贸易顺差，红色的数值代表贸易逆差，在图表中可以清楚地看到，农产品处于流出，工业品处于流入的状态。

20世纪30年代上旬为止，在流入的工业品中，纺织品的占比最大，以包括食品原料在内的消费品为中心。在那之后，随着韩国工业化的发展，机械工具和金属产品相关的生产资料的输入量出现大幅增长。农业部门的对日贸易顺差，有相当一部分与工业部门的逆差相抵消了，由图可知，到1935年为止，大概维持在70%的水平左右。





对于大米的贸易顺差无法抵消的部分，用日本流入的资金进行了填补。 在中日战争之后，工业品的输入作为重要的资金来源，以大米为中心的贸易顺差的意义开始变得没有那么大了。 农产品的贸易收支在1940年急剧下降的原因是，这一时期发生了大减产。

例如，在大米的消费量减少之前，流出量的增加主要是有以下两方面原因，一方面是因为来自满洲的杂粮等代替细粮的食品的进口量的增加，另一方面是因为朝鲜国内对于工业品的消费量的增加。 朝鲜国内工业产品市场规模的扩大，大米增产计划带来了大米流出量的增加，这两点是特别值得注意的。 但是，随着工业品消费的增加，输入量也有所增加，这也从侧面反映了朝鲜国内的工业生产十分落后。

各主要行业的工业品的外贸依存度的趋势如图8-2所示。 这里的外贸依存度，是指出口额除以生产额和出口额之和，计算得出的数值。 如图所示，虽然每个行业都有所差异，但是在正式开始推行工业化之前的20世纪20年代之前，贸易顺差一直以大米为主，而工业品的外贸依存度十分之高。

但是在那段时期之后，朝鲜国内在原有的工业品市场的基础之上，开始快速地推动工业化的发展，所以外贸依存度在20世纪30年代出现了明显的下降。 日本的民间资本流入，不仅促进了朝鲜国内工业品市场的形成，也推动了朝鲜国内工业的生产规模扩大。

考虑到这一点，我们可以说大米增值计划通过大米进一步扩大了贸易顺差，所以引起了朝鲜国内工业品市场规模的扩大，在那之后才形成了推动工业化发展的基础。

同时，我们需要注意的是当时朝鲜的耕地主要集中在地主手上这一点。 我们一起来看看图8-3，说明一下当时这一现象的实际情况。 首先，从整体水田的租佃率来看，在殖民地初期，这一比值高达65%，在昭和恐慌期，呈上升的趋势，在20世纪30年代中叶后，一直维持在68%左右的水平，

相较于水田，旱田的租佃率，维持在43% 左右，然后在20世纪20年代急剧上升至 50%，在那之后一直停留在这一水平。 在农业家庭的户数中，佃农从20世纪20年代的40%左右，特别是在需求饱和期出现了大幅上升，甚至超过了总人数的一半，在那之后稳定在了52%~53%左右的水平。



这是纯佃农的比率，同时是自耕农和佃农的人口也达到了一定的规模，而纯佃农只占到了20%左右的水平。从整体情况来看，在农业方面，地主与佃农的关系在殖民地时期初期占据了支配性的地位。20世纪20年代下旬，大米的相对价格开始进入相对不利的局面，在需求饱和期这一情况加剧，但是在20世纪30年代中叶之后，这一规模也没有进一步扩大的趋势。

在租佃田率和生产量中，使用缴纳的佃租计算得出的佃租率，可以大致推算出生产的大米是如何在各阶级中进行分配的。在土地生产效率方面，自耕地和租佃田几乎没有差异。假设佃租率为55%，20世纪30年代初期，在全部的农业家庭中占比3.6%的地主获得了37%的大米，而占比53%的佃农，却只获得了不到20%的大米分配。

并且，除了自家用的大米之外，商品化的大米集中在地主手中的趋势进一步加剧。一方面，虽然地主有可能对于获得的大米进行商品化的可能性更高，但与此同时，佃农获得的大米连平均消费水平都达不到，这一点也需要注意。在商品化的大米中，地主的份额占比达到了60%。所以，输入日本的大米有一半以上都是来源于地主。

但是，在朝鲜的大米流出期间，谷物商或精米商在其中扮演了十分重要的角色。因为在朝鲜，农民或地主是以水稻的商品形态进行售卖的，而经过谷物商或精米商加工为糙米或精米后，再流出至日本。

前面我们提到过，朝鲜米与日本米的价格十分接近，提到了朝鲜中心市场的米价，这与个体农业家庭在自家的院子交付给谷物商时候的价格，有着较大的差异。农民在销售水稻时，大量出货的时间段较为集中，农民作为个体户，力量较为分散，但是它们的资金实力和信息获取能力都与谷物商有着较大的差异，所有极有可能农民交易时，会被压到一个极不合理的低价。

1930年，根据农业家庭经济调查的结果显示，两者的价格差异达到了35%。考虑到运输费等成本，两者肯定会存在比较大的差异。但反过来看，谷物商或精米商在大米流出的过程中，应该赚取了大量的收益。



地主和谷物商持有的大量的米，而且通过此获得了很多的收益，那么这笔收益到底被用在了何处，我们也有必要来探究一下。 有一种可能性是被用于了土地资本的积累。 但是，如图8-3所示，在农田中的租佃田率已经达到了60%，而且上升的幅度比较小，所以这笔费用应该没有被用于农田的购买。

还有一种可能性是被用于了农业以外的产业投资，但是没有能直接验证这项假设的数据。 根据金洛年（2003）的研究，如果比对一下股东名录和地主及谷物商名录，找出姓名一致的部分，则可以确认相应对象的股票份额，而这一对象投资资金的来源应该与农业收益相近。

虽然这种情况也有可能是，股东用赚到的钱，购置了土地，然后成为了大地主，但是这种可能性忽略不计的话，应该问题也不大。 在股东名录中，不仅包括了“朝鲜银行会社组合要录”中登记的大股东姓名，还有他们持有的股票份额，如果是大公司的话，还会增加“营业报告书”的信息。但是，仅限于实缴资本大于5万日元的公司。

虽然记录的股东数量有些少，但是因为都是大股东，所以如果从投资额来看的话，也足以分析当时股票投资的情况。 地主或谷物商名录，按照道或地区的信息划分，编撰了大地主名录和谷物商名录。 根据相关资料显示，在名录上有记录的地主，仅限于耕地持有规模分别为30町步，50町步和100町步以上的地主。 如果资料里面没有的话，可能就覆盖不到相关的数据。 因此，在这份资料里显示的股东，地主和谷物商，仅限于耕地持有规模较大的人士。

以朝鲜社会为对象的统计结果概况如表8-3所示，老板是地主或谷物商的公司占比用绿色表示，在1925年，1935年和1939年分别为32%，33%和37%，占比约为1/3。 在股本中朝鲜地主和谷物商的贡献金额用粉红色标识，在1925为29%，而在1935年和1939年分别上升至43%和47%。 他们的股本贡献度在20世纪30年代达到了接近一半的水平，而且呈上升的趋势。

如果分行业来看，在农业公司中地主的占比最高，在金融公司中地主和谷物商的占比约为1/3。在电气矿工业公司中，用蓝色标识了地主和谷物商的占比，约为32%~39%，他们的股本贡献度为27%~47%。





如表8-4所示，日本公司的情况，在公司数量和股本规模方面，确实比朝鲜要更大。 用绿色标识的地主和谷物商比率，相较于朝鲜要低，约为1/4左右，他们的股本贡献度用粉红色进行了标识，约为23%~24%。 但是这个数值，并未包含在公司的股东之中居住在日本的地主或谷物商，所以有可能过少统计。

股东和谷物商兼任公司代表的人数占比很高，大部分情况下，他们并不是仅仅担任股东，而是直接自己设立了公司或参与公司的经营。 我们使用的这些资料，无论是地主，还是股东，都只包括了上层社会的人士，如果把所有的人都算进来的话，这个比率有可能会更高。

但是从他们的投资领域来看，与农业和大米流出相关的行业是投资占比最大的领域。 1925年，在农业外的投资中，金融业的投资最多，而在20世纪30年代末，扩大至矿业，制造业等投资领域。 我们前面提到的这些内容都是以个人股东为对象的，除此之外，还有法人股东。

当时工业化主要是由电气业，制造业和矿业主导的，在这些行业的公司股本中，日本法人的投资占了很大的一部分。 正如我们后面会提到的一样，从日本引入的资本和技术，在工业化的过程中，发挥了关键的作用。 但是，正如前面我们所提到的那样，本质上是水稻的流出带来工业品市场规模的扩张，带来了日本的资本流入。 这节课我们学习了，20世纪20年代之后，推行的大米增产计划，带来了以大米为中心的巨大的贸易顺差，但是农业的收益集中流入了地主的手中。 基于这一背景，朝鲜国内的工业品市场规模开始扩大，把农业收益用于农业外的投资，即，通过市场和资金这两个途径，为朝鲜在国内推动工业化的发展，打下了基础。





### 8-3 殖民地工业化

我们来看看20世纪30年代之后，正式开始推行的殖民地工业化政策以及当时的实际情况。

在殖民地时期，过往对于朝鲜工业化的观点和认识都是在日本侵略这一背景下，推行的军需工业化政策的产物。以1931年的民主事变和1937年的中日战争为契机，为了把朝鲜建设为后方基地，开始推进以军需工业为中心的工业化发展。

而我想强调的一点是，对于工业化发展的要求，抑或是推动因素，外部给的这些压力，和内部朝鲜政府的做法并没有关联性，因此呈现出了双重结构的形式。但是近年来，基于这一观点的研究开始大幅减少，但是韩国史的教科书的内容就是基于这种观点，所以说这一观点被普遍认同。

近年来，在英语文献中，有很多研究都关注到韩国经济通过高速成长成为了新兴工业国这一点，并且强调殖民地时期工业化的连续性。特别是在朴正熙政府执政时期动摇了这一特点，变为了由国家主导的发展，这些研究认为这一体制起源于殖民地时期。换言之，在高速发展期，韩国成为了发达国家，但这一基础其实是在殖民地时期打下的。

从这个观点来看，殖民地时期的工业化是总督府推行的产业政策的产物。通过上述两种观点可以知道，对于殖民地工业化的看法，大家的观点大相径庭。但有一个共同点是，两者在工业化的过程中，都十分重视政府的作用。如果将这两种观点分门别类的话，则分别属于军需工业化论和开发国家论。

但是，这种由国家主导的工业化论，其实并不符合当时的工业化政策和实际情况。20世纪20年代之后，朝鲜的产业政策开始推广开来，以大米增值计划为中心，所以工业化的政策也变得消极起来，相较于农业有些微不足道。

1929年的大萧条造成了米价的大幅下降，所以与日本的摩擦不断加剧，朝鲜的中农政策很快就遇到了瓶颈。这也成为了朝鲜将发展重点转向工业化的契机，但是当时的工业化政策并未有具体的内容。总督府在解放之后，已经无法再沿用以工业化为中心的产业政策。因为受到了朝鲜和日本的地区整合体制的限制。



对于推动工业化，总督府无法使用财政手段。 因为受到我们在上一节课中有提到过朝鲜的货币发行制度的限制，在日本由中央银行接手国债的发行，所以通过发行国债进行财政资金筹集，这一方式是不可行的。

为了振兴工业，不仅仅是资金筹集，近代化的技术或经营能力是不可或缺的因素，而这些都是总督府无法直接确保可以提供的，只能通过在日本筹集民间资本的方式进行。

实际上这一时期的工业化政策，总督宇垣在日本亲自劝导大资本家进行投资，还有通过行政措施，创造出资本流出和流入的有利环境。 除了朝鲜的劳动力成本比较低之外，例如，允许不在朝鲜使用像工厂法或重要产业管制法等具有资本管制性质的法令。 从而宣导朝鲜是一片“资本自由的乐土”，通过这种形式来吸引日本资本的流入。

这种政策被称为“宇垣自由主义政策”，在20世纪30年代初期，展现出了工业化政策的特征。 在工业化过程中，值得注意的一点是，总督府在20世纪20年代通过水利调查发现了大规模电力建设的可能性，这种建设不是由总督府主导的，而是通过日本的民间资本进行推进的。

在1936年的朝鲜产业经济调查会中，提到了通过“农工并进”的方式，开始振兴工业，而在中日战争之后，1938年的朝鲜产业经济调查会中，更加明确地提到了工业化这一发展方向。 在那段时期，朝鲜的工业，特别是军需工业是发展的重中之重，需要有飞跃式的发展，且对于到1941年为止需要扩大规模的行业和生产量目标都有进行具体的说明。

但是，这里提到的被选定为生产力扩大的行业，严谨地说并不是军需工业，而是需要生产资料投入的产业，用当时的话来说应该是“生产力扩大计划产业”。 在中日战争之后，充分调动了物资，资金和人力，甚至还通过立法的形式，使得这些行业的资源分配额能得到政策的优先扶持。

从当时工业化政策的实际情况来看，我们有必要注意的是，在中日战争前后，是完全截然不同的两种形式。 在战争时期，根据生产力扩大计划的要求，选择特定的行业进行扶持，通过调动一切管制手段，来推动工业化的发展。



即，这种形式并没有完全否认试产的作用，但是对于重要的物资等物品，实施了计划分配，而这一举措在战争时期得到了进一步的强化。 相较于此，在中日战争之前，也有军需工业化这种政策，但是并不存在国家主导的，政府干预的措施。 从这一个层面来看，中日战争使得经济运行体系发生了较大的改变。

在之前的不少研究中都想要把在战争时期后开始正式实行的军需工业化政策，或政策中体现国家主导的因素，应用于更早的时间阶段。 但是，开发国家论的这种观点，在英语文献的研究中，具有根深蒂固的影响。 在这些研究中，把殖民地时期的总督府和朴正熙政府都定义为了强国，与朝鲜时代的韩国割裂来看。

更进一步来看的话，朝鲜时代的国家并不是民主国家，但也不是君主的专制主义。 因为两班势力，牵制了君主的专制统治。 这种牵制和统治力量的平衡，使得朝鲜王朝存在了很长的一段时间，但是在港口开放时期，面对急剧变化的形势，并不是一种高效的体制。

日本帝国的殖民地统治，用中央集权制的权威主义政府，代替了这种传统政府体制。 所以，朴正熙时期的权威主义政府，与其说是来源于朝鲜社会的传统制度，倒不如说是来源于殖民地政府时期的政府体制。 这种强国，具有强制性和发展导向性的特征，而这两个时期都具有向着同一个社会目标而努力的这一特征。

在这里需要说明的是，所谓强国，包括了以下三个含义。 ①具有强制统治的能力；② 特定集团或阶级不再具有政治影响力，而是具有相对自律性；③实施国家干预主义。 开发国家论的适用时期，是殖民地政府和朴正熙政府都符合上述①②③点的时期，可以被之为强国。

但是，如果更严谨地一点来看，在进入战时统治之前，殖民地政府符合上述①②的特点，而③这一点则较弱。 有些学者会在研究中，误把国家干预主义，适用于其全面登场之前的20世纪60年代~20世纪70年代时代。 这一问题有可能是研究者想要把说明朴正熙政府的高速发展的强国论，强制适用于殖民地时期而导致的。

国家主导的工业化论这一说法，仅在战争时期具有说服力，对于之前时期的工业化，有必要找到其他的因素进行说明。 首先，我们来看一下可以反映殖民地时期推行的工业化实际情况的几项指标。





工厂数量和从业者人数以及公司的实缴资本的变化趋势如图8-4所示。对于工厂的范围，每个时期的定义都会有所差异，基本上是指拥有5人以上员工的工厂，若工厂规模小于这一标准的话，则被归为家庭手工业。

在1910年~1928年这一期间，整体工厂数量从151家上升至5,342家，而在1928年~1940年期间，则从4,010家上升至7,142家。1928年，工厂数量的统计结果有两种，主要是因为在这一时期对于工厂范围的定义变小了。

1910年~1920年，1920年~1928年，1928年~1940年的年平均增长率，分别为30%，12.5%，4.9%，由此可知工厂数量的增长率越接近初期反而越高。我们来和解放后的数据比较一下，1955年~1970年和1970年~1990年这两段时期的年平均增长率分别为6.9%和5.4%。虽然有可能受到殖民地初期工厂数量较少的影响，但是这个增长率在解放前反而更高。

如果分民族来看，20世纪10年代，朝鲜人开的工厂占整体工厂的25.8%，而这一比重在20世纪40年代上升至了60.2%。朝鲜人的工厂大多是小规模工厂，而大规模的近代化工厂大多是日本人的工厂，但是这一情况并不能通过各民族的工厂数量构成比例反映出来。

但是，与传统的观点不同，日本的流入，并没有让朝鲜人陷入资本发展停滞或没落的状态，反而使得朝鲜人的工厂开设数量急剧增加，并且从构成比例来看，朝鲜人的工厂占比也相对较高，这一点值得关注。在这个过程中，朝鲜人的工厂规模在不断地扩大，而发展初期，偏重于像碾米厂和酿造厂等特定的行业，而在此之后，开始向多元化的行业方向发展。

工厂从业者人数用浅绿色的实线标识，用右侧的对数坐标，单位为千人，这一时期从1.5万人上升至约30万人。20世纪10年代，20世纪20年代和20世纪30年代的年平均增长率分别为16%，6.3%和11.2%，相较于1955年~1970年和1970年~1990年的增长率10.1%和6.5%，相对较低。

公司的实缴资本用红色的实线标识，用右侧的对数坐标，单位为百万日元，这一时期开始快速增长。用实缴资本除以GDP平减指数，得到1935年的不变价格，年平均增长率为12.9%。





如果只看工厂统计的增长率的话,那么这一时期的工业化进程应该十分之快,但还是未摆脱低水平的发展阶段,这一点需要注意。工厂从业者人数上升至1940年的30万人,但这也不过占整体有业者人数的3.3%而已。

而规模小于工厂的家庭手工业的占比则更高。从工业生产额来看,在20世纪20年代初期,家庭手工业的占比在一半以上,而在工业化急剧发展的20世纪30年代,这一比例下降至20%。虽然这一比例急速下降,但一直到中日战争爆发为止,家庭手工业生产的绝对水平都呈现出增长的趋势。

虽然当时有部分的家庭手工业的商品生产,进一步发展成为了工厂,但在消费方面,还是呈现出自给自足的特征。即使发展了工业化,自给自足的家庭手工业也没有被驱逐,这与台湾形成了鲜明的对比。朝鲜和台湾不同,农业劳动有季节性的特征,且农闲期比较长,即使效率比较低,但是家庭手工业作为农业家庭的副业形式存在,这一现象的存在具有合理性。

最终,这个时期的工业生产,随着日本资本的大量流入,开始建设工厂,同时还形成了中小规模的工厂,而在底层形成了自给自足的家庭手工业,呈现出了多种多样的形式。

把生产和贸易统计的产品,去掉服务的部分,可以分为中间产品和最终产品,而最终产品又可以分为生产资料和消费品。这里的中间产品是指会被投入到生产过程中一次性使用的产品,但是生产资料是指在一定的时期内会长期使用的耐用品。

按照产品的类型来分,朝鲜国内的消费可以通过“生产-流出+流入”这一条公式进行计算。中间产品在各产业之中,呈现出越来越明显的分工趋势,在最终产品中又分为了消费品和生产资料,分别代表了消费水平和投资水平。

在图8-5中,生产构成是指在整体的生产过程中,各类产品的占比,而消费构成是指在整体的消费过程中,各类产品的占比。在图中,生产构成标识为P,而消费构成标识为C。这里不是用增额,而是用构成比例的形式进行展示,是为了排除物价变化的影响,比较各时期的趋势。



首先，在图8-5的图表A中，把整体产品分为了消费品，生产资料和中间产品，在生产和消费过程中，各类产品的变化趋势。生产构成比用实线，消费构成比用虚线进行标识。例如，绿色虚线为在生产过程中的消费品构成比，在1918年~1940年期间，从85%急剧下降至58%，而在同一期间，蓝色实线为在消费过程中的消费品构成比，也呈相似的下降趋势。

如图所示，消费品的构成比大幅下降，是因为中间产品和生产资料构成比的大幅提升。中间产品构成比的急剧上升，不仅在朝鲜国内，在朝鲜和日本间的产业分工深化方向也有所变化。

并且，生产资料的占比虽小，但也呈现出了急剧上升的趋势。特别是生产资料的生产构成和消费构成在1918年分别为1%和4%，而1940年则分别提升至4%和11%。这个趋势反映了，朝鲜国内的投资大幅依赖从日本流入的生产资料的影响，呈现出上升的趋势。

在图8-5的图表B中，展示了农产品的消费品与工业品的消费品和生产资料，各自的生产和消费构成。农产品消费品的构成比急剧下降，而与此形成鲜明对比的是，工业品的消费品和生产资料占比快速提升。

相较于消费构成（酒红色实线），农产品消费品的生产构成（红色实线）相当之高，应该是受到前面我们提到的大米流出的影响。工业品的消费品和生产资料的生产构成（紫色，粉红色虚线）在1918年~1940年期间，呈现出持续上升的趋势。

因为这一时期物资生产持续上升，所以构成比的上升，应该要比工业生产的绝对水平，呈现出更快速增长趋势。这反映了当时工业化的快速发展。由此可知，工业化不仅仅是在20世纪30年代，而是在开始实施统计的1918年之后，持续存在的一个现象。

并且，工业品的消费构成相较于生产构成要更高，实际上朝鲜通过贸易进口了消费品，而其工业品的消费量要大于自身的工业生产能力。这就像我们前面提到的一样，大米的大量流出，为朝鲜的工业品市场的规模扩大打下了基础，从而带动了国内生产水平的提升。

从工业品消费品的消费构成来看，在1918年~1935年期间从15%提升至26%，但是1935年~1940年从26%下降至22%，这一点值得注意。这一现象与工业品生产的消费构成持续提升，形成了鲜明的对比。



虽然在图表中没有提到,但是如果细分工业品消费品的类型来看,这是由于纺织品和食品 的消费构成下降而引起的。有可能在中日战争前后的这段时期,大众消费品的消费已经达到了峰值,所以重新回归了下降的趋势。

在朝鲜依赖进口的产品,随着工业化的推进,逐渐地出现了进口替代的趋势,让我们来看下下面几个例子。在图8-6中,我们可以看到当时作为最重要的大众消费品的棉织品的朝鲜国内生产,以及相关的流入和流出量,还有由此计算得出的国内消费趋势。所有的数据都是以1935年的不变价格为基础。

首先,棉织品的消费额从殖民地初期的3,000万日元,上升至1934年的6,700万日元,在达到峰值后重新出现了下降的趋势。朝鲜国内的消费,大部分都为流入物品,在进入20世纪30年代以后,朝鲜的国内生产开始快速上升,由此可知,当时出现了进口代替的趋势。用棉织品的流入额,除以生产额与流入额之和,计算得出外贸依存度,从殖民地初期高于80%的水平,逐渐缓慢下降。随着20世纪30年代,朝鲜国内棉织品生产呈现出急剧上升的趋势,在1940年,这一数值下降至5%。中日战争之后,原料棉花的供应受到限制,在朝鲜国内的生产规模也有所减少,而流入规模减少的时间应该早于此。在中日战争之前,虽然每个时期的发展速度有所不同,但是由此可知,棉织品的流入已经渐渐被朝鲜的国内生产所取代。

而图8-6则展示了胶鞋的例子。胶鞋的消费在20世纪10年代处于一个非常低的水平,但是从20世纪20年代开始急剧地上升,到1937年达到了6,500万日元的规模。由此可知,3.1运动之后,胶鞋开始大规模地流行开来,初期主要是从日本进口,但是随着朝鲜国内生产规模的扩大,出现了代替流入商品的趋势。从图表中可知外贸依存度呈持续下降的趋势。

在中日战争之后,生产规模有所缩小,这是因为和前面我们提到的棉花一样,在战争时期橡胶的原料供应受到了限制。前面提到的棉纺品产业,主要是由生产纺织品的大企业为中心主导,包括朝鲜人开设的企业京城纺织在内,推动了对于日本进口纺织品的代替品的发展。相较于此,胶鞋是以大规模的工厂为中心,虽然初期是日本人开始生产的,但是逐渐过渡为了朝鲜主导的局面。





在化学肥料方面，日本的大财团日本窒素开始进军朝鲜市场，而这一产品的进口代替品开发案例可谓是一个一箭双雕的例子。在朝鲜，随着大米增产计划的推行，化学肥料的使用量也开始增加，而一开始主要依赖从日本市场进口。日本窒素在咸镜道，建设了在日本也史无前例的大规模水力发电站，建设了长津江，赴战江和虚川江发电所，随后建设了朝鲜智索工厂，这个工厂使用电力进行生产，应用了最新技术进行化学肥料的生产。1930年，这一工厂开始投产后，生产量开始大幅提升。与此同时，朝鲜国内的肥料消费量也大幅上升，在1940年达到了2亿日元的规模。

但是也有部分产品并没有呈现进口替代的发展趋势，其中最具有代表性的是机械类产品。机械类的产品在朝鲜国内从初期600万日元，而到1940年，急速上升至超过2亿日元的规模，但是外贸依存度一直维持在80%左右的水平。

即使这一时期设备的投资有大幅的增长，但是因为朝鲜的技术水平较低，所以在朝鲜国内这一产业的发展受到了限制。事实上，在解放后不久，机械类的对外贸易出现了行情低迷的问题。

虽然随着工业品的市场规模扩大，在不同的品类间呈现出了不同的发展趋势，但是都对朝鲜国内的工业化做出了贡献。在棉织品和化学肥料方面，外贸依存度较高的朝鲜市场的规模发展达到了一定的水平，所以日本对此虎视眈眈，大财团计划对这些行业进行直接投资。

在橡胶工业方面，首先胶鞋作为当时新的进口商品，开拓了朝鲜的国内市场，以这个市场为基础，朝鲜国内出现了许多的小规模工厂。在发展中国家，一般会进行商品产品的出口和工业品的进口，而且这一结构渐渐固化。

如果想要摆脱这种情况的话，就要求民间企业家，能够勇于捕捉市场规模扩大的机会，并发挥创造性的作用。正如前面我们提到的那样，朝鲜人的工厂数量开始快速上升，而且进军的行业类型也十分多元化。在需要大规模的资本和高水平技术投入的行业，基本上都是由日本企业主导，但是在没有这些门槛的行业，富有进取精神的朝鲜企业家们开始快速成长起来。

这些个例的发展方向，也与工业的整体发展方向相符。前面我们提到过的图8-2，如果计算一下工业品整体的外贸依存度，从1918年的39%上升至1930年的49%，达到峰值后，在1940年又重新下降至了35%左右的水平，整体趋势呈现出一个平缓的倒U字形。





每个行业之间也有所差异。机械器具和金属工业的外贸依存度都十分之高，但是食品行业则相对较低。由此可见，通过朝鲜国内进行肥料的生产，化学工业的外贸依存度开始大幅下降。纺织工业的外贸依存度方面，之所以与前面提到过的棉织品有所差异，是因为还受到了外贸依存度较高的丝织品或人造丝制品的影响，而且这两类商品的占比在不断提升。



## 8-4

## 战时体制

但是在战时统治时期，工业化的状态在本质上发生了变化，我们来看看当时的情况。

在中日战争之后，开始实施战时统治。这里我们主要来看看战时统治法，这一法律同时适用于日本和朝鲜以及台湾地区。首先，在“与进出口商品相关的临时措施法”（1937）中，限制或禁止了指定商品的进出口。管制的对象除了进出口商品，范围还扩大至了相关商品的原材料，对于物资的管制，大部分是依据这部法律的规定进行的。

与此同时，为了进行资金管制，出台了“临时资金调整法”（1937）。根据这部法律的规定，把行业划分为了甲、乙、丙三个等级，然后依照政策的优先级，进行资金的分配。

1938年，制定了国家总动员法，进一步扩大了政府的管制权限和范围，具体的管制内容通过敕令的形式进行约定。如果说前面我们提到的两部法律是对物资和资金的管制，那么国家总动员法则是对劳动的管制。

而且物价也成为了管制的对象。例如，在第二次世界大战爆发后，物价开始大幅上涨，所以颁布了价格等管制令，在1939年9月18日，冻结了所有的价格。不仅限于商品价格，包括运输，工资和租金等价格在内，都成为了管制的对象，而且连公司的利润分配和地租也都成为了管制对象。不仅仅是商品价格，而且连用于商品生产的生产要素的价格也成为了管制对象。

但是，各种物资和相关原料的供应条件继续发生变化，生产条件也在发生变化，这种固定价格的方式，选择了忽视上述变化，造成了生产规模的缩小等生产效率低下的问题。为了弥补这一缺陷，政府调整了方式，会不断更新各品类的最新销售价格，在当时总督府的告示中，这些销售价格占据了压倒性的优势。对于重要品类，政府代替了价格管理机构的职能。

但是，这种方式没有办法调整物资的过剩或不足，所以生产规模进一步缩小，而黑市交易规模进一步扩大。为了加强对上述现象的管理，政府甚至出动了经济警察，进一步加强了管制。



在国家总动员法中，包含了很多对于作为市场经济体制根基的财产权保护和合同，以及销售的自由实施的限制性措施。 为了达到总动员的目的，在必要的情况下，政府可以针对工厂，经营场所，船舶或其他设备，进行管理，使用或接收。 在必要的情况下，可以限制设备的新增，扩充或改良，或命令当事方进行已有的设备的转让，委托，废弃，停止使用，以及法人的合并与解散。虽然这些措施是在战争时期推行的，为了集中力量抗争，行政机构可以调动一切的物资，资金和劳动力。 最终，包括以个人自律作为基本原理的民法或商法，都受到了管制法的广泛约束。

前面我们学习了战时管制体制，和之前的市场经济体制，有本质上的不同，已经发生了本质变化。 从体制原理方面来看，并没有完全废弃以前的制度，而是用计划和管制的手段取代了之前的方式。 但管制并不仅限于价格的管制，还进行了制度方面的干预，例如，干预了民法和商法的内容，这两部法律作为市场体制的制度基础，以保障所有权与合同和销售为目的。

但是，反映战时工业的实际情况的资料具有局限性。 总督府的统计年报在1941年之后，并没有继续正式发刊。 这一时期，因为价格受到管制，所以黑市交易的情况很常见，但这一情况如果只通过增额的数据统计结果的话，是很难进行体现的。

仅限于可以统计生产量的品类，在战争之前的1936年，以100为基准统计的生产指数的变化趋势如表8-3所示。 首先，矿物，铁，电力等成为了生产力扩大计划对象的行业，大部分都呈现出了急剧上升的趋势，一直持续到了战时末期。 由此可知，受到当时环境条件的影响，品类之间的差异十分明显，成为了政策扶持的对象的品类，在1944年这个时间节点，相较于1936年，也已经有了几倍的提升。

相较于此，在大众消费品方面，从中日战争爆发到20世纪30年代末这段时期，又呈现出了减少的趋势。 在农产品方面，除了土豆，其他都在中日战争之后，出现了减少的趋势。

在纺织品方面，棉织品在1938年达到峰值之后，重新恢复了减少的趋势，丝织品和人造丝织品的生产在那之后也持续上升。 在酒类方面，20世纪30年代末期，生产量到达了峰值。





由此可知，生产力扩大计划中的指定行业，与未被选为指定产业，包括农业在内的大众消费品产业之间，在战时体制下，在生产趋势方面呈现出了很大的差异。在那背后，对于产力扩大计划中的指定行业，集中了资金和资源进行大力扶持，而其他行业的发展也因此受限，当然也受到了战时经济统治的影响。

在中日战争之后，开始了这种行业间生产发展的分化，各产业的GDP统计结果反映了工业生产的整体情况，一直到1940年为止，都呈上升的趋势。但是在那之后，政策扶持的指定对象和其他行业领域间的差异会进一步缩小，而且较大可能整体都呈现出缩小的趋势。

如图8-7所示，贸易从20世纪30年代末开始，呈现出减少的趋势，特别是从1943年开始，这一减少趋势尤为明显。但是，20世纪40年代，相较于流入，流出的减少速度更快，1944年，最终出现了物资的净流出情况。在工业品消费方面，流入商品的占比十分之大，应该是因为战时经济的环境，在供应上受到了限制。

在这里需要注意的是，中日战争之前的工业化和战时工业化，这两者的意义是不同的。在中日战争之前，是以工业品消费品为中心进行的工业化，在市场和资金的层面，与农业的出口产业化发展有着密不可分的关系。战时工业化，是依靠政府的管制，以打压或牺牲大众消费品的生产和消费为代价，把所有资源都集中到生产力扩大计划的指定行业扶持中来。

虽然工业在上述两个时期的发展计划中，都占据了较大的比重，所以都可以称之为工业化，但其背后的运行机制是完全不同的。

前面我们提到过，在太平洋战争时期，从日本流入朝鲜的资金开始急剧上升，与此同时，资金的流出也在不断地急剧增加。如表8-1所示，这一时期的资金流出，是以日本的国债为代表的买入有价证券的形式。我们来思考一下这背后具有怎样的意义。这一时期，朝鲜的金融机构对于日本的有价证券买入，呈现出大幅上升的趋势，是因为存款的金额有大幅增加。存款的增加，是因为战时通过多种途径流入的资金，在支出的同时，也使得名义收入有所增加。所以，在战时环境下，大众消费品的供应量出现了大幅的减少。如果放任这种情况不管的话，就会出现通货膨胀的现象，所以不可避免地要鼓励或强制储蓄，或者进行资金管制。





强制储蓄，例如在支付工资的时候，先扣除存款的部分，只支付用于支出的部分。 根据1943年的资料显示，农民上缴大米的话，需要强制储蓄20%的销售额，而像生产奖励补贴的情况，会扣除60%作为信用合作社账户的存款。

1944年，销售额的强制储蓄扣除率上调至了30%。 通过这种方式，信用合作社的存款规模开始大幅扩大，通过买入殖产银行发行的债券或日本的有价证券进行运营。

在之前第七周的课程中我们曾提到过，朝鲜银行的货币发行，是由日本银行进行支付准备的。这种方式，使得朝鲜银行无法滥发货币，维持了两个地区之间货币的等价交换。 但是，如果反过来看的话，如果出现像战时的情况，从日本流入的资金开始急剧增加，虽然朝鲜银行券的发行量也会增加，但是没有一种方法可以阻止这种情况的继续发生。

资金的流入，可能会被用于日本商品的流入，所以日本的资本输出，一般会伴随着物资的流入。 用流入的资金填补贸易收支逆差，是一种典型的做法。 通过战时的强制储蓄进行日本的有价证券买入，但这笔资金并没有被朝鲜用于物资的流入，而是选择了增加日本有价证券的持有规模。

这可以视为在战时体制下，日本的物资供应能力减弱，在这种情况下，为了防止受到日本通货膨胀的波及，而采取的措施。 但是在战时末期，因为资金管制的限制，朝鲜银行券的回收成为了一个难题。 通过价格管制来减缓通货膨胀的压力，在管制结束后，爆发了恶性通货膨胀。 因此，战时末期的日本资本输出，其性质变为了通货膨胀的输出。

我们这节课也步入了尾声。 这一时期，区别于其他时期，最大的特征就在于殖民地体制。 而且以中日战争为分界点，运行了两套大相径庭的体系 首先，在中日战争之前，我们在之前的课程中提到过的制度变化，以此作为前提，当时实施了地区整合体制，统一了市场和货币，而殖民地时期的政府并不鼓励推行国家干预主义的产业政策。

这一时期，以大米出口为中心进行农业发展，也是开放港口的成果之一。 并且，为了实现工业化，即使在没有良好的产业政策扶持的背景下，也推动了与大米出口产业化有着密切关系的，以工业品消费品为中心的工业化的发展。



在第一部分各主题的长期趋势中，我们曾学习过，如果将这一时期和其他时期进行比较的话，还是以农业为中心的社会，出生率高，储蓄率低，人力和物质资本的形成处于一个非常低的水平，所以生产效率也比较低。

经济增长率如果和解放后的数值相比，只有一半左右的水平，殖民地统治民族对于近代技术和资本具有压倒性的优势，地主制度十分发达，这一时期的不平等现象比其他时期都要严重。从这个层面来看，我们可以通过这一时期的情况，了解到在欠发达的社会被并入了较为发达的社会之后发生的经济变化。

在战时的体制有所转变，不再是市场经济体制。这一时期，相较于市场经济，更强调计划和管制的原理。这一时期的工业化，主要是通过政策扶持重点行业的形式进行的，这也是为了推进工业化的发展，这是一种在推进工业化过程中，最大化低使用产业政策的方式。

由于战时特殊情况，以牺牲部分行业为代价，集中力量扶持指定行业的发展，但这肯定不是一种可持续发展的方式。与前面时期推行的工业化的市场原理，有明显的区别。这个时期虽短，但是在解放后还是产生了很大的影响。朝鲜的情况我们后面会提到，他们一直沿用了这种管制体制，韩国的战时体制对于产业政策也产生了不小的影响。

这节课是我们的第八节课，学习了与“殖民地时期经济开发”相关的内容。下节课我们将以“解放，分裂，战争和援助经济”为主题，进行相关内容的学习。谢谢。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퀴즈

### 01 일본의 자본수출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총독부는 국채를 일본에서 발행하였는데, 그 수입금으로 재정적자를 충당하였다.
- ② 조선식산은행은 식산채권의 발행으로 자금을 조달하여 산미증식을 위한 수리시설의 건설과 광공업 등에 융자하였다.
- ③ 1930년대 이후 일본으로부터 회사자본의 유입이 크게 늘어나 공업화가 가속되었다.
- ④ 태평양전쟁기에 일본에서 조선으로 자금 유입이 급증하였을 뿐만 아니라 조선이 일본의 국채를 비롯한 유가증권을 매입하는 형태로 자금의 유출도 급증하였다.

정답 ①

**해설** 총독부는 국채를 발행하여 그 수입금을 철도의 건설과 개량에 사용하였다. 총독부 국채는 특정 목적을 가진 사업공채에 한정하여 발행되었고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한 국채는 발행되지 않았다.





## 02 농업개발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조선의 토지 면적당 쌀의 생산성은 일본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여 조선에서 쌀의 증산 여력이 컸다.
- ② 조선은 쌀이 증산된 것보다 수출이 더 빨리 늘어난 결과 1인당 쌀소비가 줄었는데, 이것은 조선인의 생활수준이 악화되었음을 보여준다.
- ③ 조선 쌀의 일본 수출은 일본의 쌀 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므로 일본 농민의 이해를 대변하는 농림성은 조선총독부에 산미증식계획의 중단을 요구하여 갈등하였다.
- ④ 전체 농가의 3.6%인 지주가 소작미로 전체 쌀 생산량의 37%를 취득하였고, 쌀의 자가 소비를 제외하고 상품화되는 쌀에서 지주의 몫은 60%로 더욱 높아진다. 이것은 농업에서 자본 축적이 주로 지주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뜻한다.

정답 ②

**해설** 조선의 쌀 증산을 웃도는 수출의 증대, 그로 인해 조선인의 1인당 쌀 소비가 감소한 것을 '쌀의 기아수출'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데에는 두 가지 요인을 생각할 수 있다. 하나는 이 시기는 지주제가 발달해 있어 상당한 규모의 쌀이 소작미 형태로 지주에게 집중되어 있었다. 지주는 농민보다 쌀의 상품화율이 높았으므로 이러한 쌀의 분배 구조가 쌀의 상품화와 일본으로의 수출을 촉진하는 요인이라 할 수 있다. 또 하나는 조선경제가 쌀이 부족한 일본경제와 통합됨에 따라 조선미의 가격이 일본미에 접근하거나 연동하게 되었는데, 이것이 쌀 가격을 높여 조선의 쌀 소비를 억제하였다는 것이다. 쌀 소비가 줄었다고 해도 그것이 생활수준의 악화를 의미하지는 않다. 쌀의 판매 대금으로 다른 소비를 늘리거나 저축을 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 03 전시경제에 관한 설명에서 잘못된 것은?

5분

- ① 중일전쟁 이후 ‘수출입 등 임시조치법’과 ‘임시자금조정법’(모두 1937년), ‘국가총동원법’(1938년)에 의해 물자, 자금, 노동이 통제되었다.
- ② 전시와 같은 상황에서는 가격기구보다는 계획이나 통제가 더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
- ③ 전시 목적을 위해 지원한 산업은 계속 증산이 이루어졌지만, 대중 소비재 산업은 대체로 중일전쟁 이후 감산으로 돌아섰다.
- ④ 전시말에는 일본으로부터 자금유입이 급증하였고 그로 인해 명목소득이 크게 늘어났지만, 물자 부족 하에서 그것이 인플레이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저축을 강제하였다.

**정답 ②**

**해설** 전시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정책 목적으로 배분할 필요가 있으며 특히 철강을 비롯하여 전쟁 수행에 긴요한 중요 물자의 경우 계획과 통제가 불가피해진다. 그렇지만 이 방식이 효율적이라는 뜻은 아니다. 전시에 어느 품목의 가격을 규제하려면 거기에 투입되는 상품뿐만 아니라 생산요소의 가격도 규제하지 않을 수 없게 된다. 그 결과 점점 더 많은 품목에 대해 정부의 고시가격이 가격기구를 대신하게 된다. 그렇지만 정부의 고시가격이 자원의 수급 조건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생산은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암시장이 나타난 것은 그 때문인데, 총독부는 경제경찰을 동원하여 이를 단속하였다. 이 상황에서 증산을 강행하고자 할 경우 통제를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는데 이것은 효율을 희생하는 악순환에 빠지게 됨을 뜻한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보고서

- 다음의 주제를 확인하여 본인의 생각이나 의견 등을 작성하시면 됩니다.
- 한글 혹은 워드 문서로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글자크기 11pt, A4 3장 이상)

### 주제

식민지 조선에서는 공업화가 빠르게 전개되었다. 식민지에서 공업화가 이루어진 것은 드문 일이다. 종래에 이를 일본의 대륙 침략을 배경으로 하여 추진된 군수공업화 정책의 산물로 설명하기도 한다. 또는 식민지기에 개발국가(deveopmental state)가 출현했고 그에 의한 산업정책의 산물로 보기도 한다. 다만 정부 역할에 주목하는 설명은 전시 통제기에는 유효할 수 있지만, 그 이전부터 전개된 공업화를 설명하기는 어렵다. 중일전쟁 이전에는 총독부가 오히려 중농정책을 폈고 뚜렷한 공업화 정책이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식민지 조선에 공업화가 어떻게 전개되었는지를 설명해 보라. (120분)

### 참고

공업화를 논할 때 경제통제가 실시되는 중일전쟁 이후와 그 이전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그 이전은 시장경제 체제였지만, 그 이후는 경제의 조직원리로서 시장을 폐기한 것은 아니지만 계획과 통제가 시장을 상당히 대체하였으므로 공업화의 전개 논리가 달랐다. 전시 통제기의 공업화는 목표로 하는(targeting) 산업에 자원을 집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며, 다른 분야가 희생되었으므로 지속 가능한 방식이라 보기 어렵다. 이에 대해 전시 이전은 변변한 공업화 정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공업화가 빠르게 진행하였다. 이에 관해서는 1920년대 이후 전개된 산미증식계획과 농업의 수출산업화가 공업화에 미친 영향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그것이 조선 내 공산품 시장을 선행적(先行的)으로 확대하고, 지주에 집중된 농업수익의 농외투자를 가져왔는데, 이러한 시장과 자금의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조선 공업화가 촉진되었기 때문이다.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서울대학교 한국경제와 K학술확산 연구센터

Center for Korean Economy and K-Academics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 자료

- 김낙년(2019), 「식량을 수탈했다고?」, 이영훈 편 『반일종족주의』, 미래사.
- 김낙년(2020), 「“제도와 정책을 통한 수탈?” 변형된 수탈론에 불과」, 이영훈 편 『반일종족주의와의 투쟁』, 미래사.
- 김낙년(2006), 「식민지시기의 공업화 재론」, 박지향·김철·김일영·이영훈 편, 『해방 전후사의 재인식 1』 책세상.

